

계간

ISSN 3022-0300

# 북한 지역연구

여름  
2024

통권 제5호

이번호 주제: 양강도 혜산시(惠山市)

여호와 이레와 닛시의 하나님

북중 국경도시 혜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COVID-19 이후의 혜산농민시장의 변화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혜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조성

백두권역의 관광자원 실태와 특징

양강도 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2024 여름 통권 제5호

이번호 주제 : 양강도 혜산시(惠山市)



**02 권두언**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여호와 이레와 낫시의 하나님



**09 북중 국경도시 혜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25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 대표)  
COVID-19 이후의 혜산농민시장의 변화



**32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38 김성배** (송실대 명예교수, 한하나로연구소 소장)  
혜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조성

**44 강동완** (동아대 교수/유튜브 강동완TV 운영자)  
백두권역의 관광자원 실태와 특징

**48 혜산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 Cover Story

중국 장백현에서 찍은 혜산시  
위연지구 압록강가의 마을.  
한 여인이 강둑 위를 걷고 있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랑,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4년 7월 11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62 이한복**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양강도 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68 혜산과 양강도의 음식**

**69 양강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량강도 아이들**

**71 혜산의 사람 사는 이야기  
혜산의 사람 사는 이야기**



**81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혜산 소식  
언론에 비친 혜산**





# 여호와 이레와 닛시의 하나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양강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해산시는 2019년 시로 승격이 된 삼지연시와 함께 양강도의 대표적 도시지역이다. 해산지역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개마고원의 북쪽 지역 중국과 연이은 압록강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양강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낮아 약 700미터에 위치한다. 양강도의 평균 고도는 약 1,300미터의 산악지역이다. 양강도는 대륙성 기후지역으로서 연평균 섭씨 2.1도이고, 1월 겨울 평균기온은 마이너스 섭씨 18.5도이다. 해산지역의 여름은 평균 18-20도이고, 1월 겨울은 마이너스 15도 내외이다. 개마고원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진 고원지역으로서 수많은 고산들과 험준한 대명사로 불렸다. 한국말 표현에 “삼수갑산에 간다.”라는 뜻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귀양지로서 함경도의 서북쪽 백두산 오지지역으로 추방된다는 의미였다. 해산지역이 조선시대의 삼수갑산지역이었다.

해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백두산과 개마고원 지역의 광대한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7년 해산에 영림창 기관을 설립한 이후이다. 일제는 1937년에 수풍댐을 건설하였고, 이쪽 지역의 산림자원이 수풍댐까지 직접 수송이 되도록 영림창을 백두영림서로 승격을 시켰다. 일제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의 산림자원뿐 아니라 이쪽 지역에 금, 황동, 마그네사이트, 아연, 석탄 및 희귀 금속 등의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많은 것을 보고, 대대적으로 산림 및 광석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원산까지의 철도노선인 경원선에 1914년 함경선을 착공하였고, 함경선은 1930년대에 무산선, 길주에서 해산까지의 해산선, 만포에서 해산까지의 북부철도 등으로 연이어 개발이 되었다.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이쪽 지역은 1954년 신설된 양강도에 편입이 되었다. 양강도는 함경남도 해산시, 운흥군,

보천군, 삼수군, 신파군, 갑산군, 풍산군, 풍서군, 부전군, 함경북도의 삼사군과 자강도의 후창군 등이 통합되어서 양강도가 되었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남한의 8개도를 의식하여 대등한 수효로서 북한도 8개도를 만들어서 기존의 도 지역이 남과 북 지역으로 나뉘고, 새롭게 자강도와 양강도를 신설한 것이다. 양강도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개발이 된 철도노선의 중심지로서 해산을 기점으로 일제와 동일한 목적으로서 산림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철도노선 위에 다양한 철도노선을 개발하고, 또한 백두산관광철도노선으로서 해산과 삼지연시를 연결하는 철로를 부설하고, 주변에 많은 지선 철로를 부설하였다. 해산 주변에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과 연관된 사적지 및 전적지가 있고, 이와 연관된 김일성 가족을 명명한 지명이 많기에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역사 탐방지역으로 마치 미국 동부 보스턴 시내의 독립운동 유적 탐방코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해산지역을 가리켜서 “수령의 혁명전통이 하늘땅에 넘친다.”라고 표현한다.

해산시내에는 보천보 전투승리기념관과 기념탑이 있고, 혁명역사박물관이 있다. 주변 신파군은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군으로 불리고, 후창군은 김일성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 김형직군, 풍산군은 김일성의 작은 아버지인 김형권군으로 불린다. 이렇듯이 해산과 주변 지역은 김일성의 혁명역사와 직접 연관된 지역이 많기에 북한의 젊은 세대의 필수적인 혁명역사 답사코스이다. 여기에 해산과 백두산 주변지역의 중요성이 있다.

양강도 해산지역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원산과 라선 지역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경도 지역에 대한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미 기술하였다.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부는 1894년에 원산에 선교기지를 세우고, 한국인 전도자들을 임명하여서 함경도 지역 선교를 개척하게 하였다. 이들 전도인들 중에 함경도 북부 지역 선교에 두각을 나타낸 분은 평안북도 박천 출신의 차을경 전도자이었다. 차전도자는 양반 출신으로 고향의 유부녀를 성폭행하는 강간범죄를 저지르고, 함경도 북부 산악지역으로 도망을 친 인물이었다. 그가 23살 때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24살이 되던 1894년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원산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훈련과 전도인의 삶에 헌신하게 되었고, 1896년 함경도 지역으로 파송받게 되었다. 그는 함경도 동부 해안 도시들과 북부 산악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순회전도 활동을 하면서 1896년부터 1909년까지 갑산읍교회와 주변 예배처소, 고원군 덕지교회, 흥원군 흥원읍교회, 영흥군 영흥읍교회, 단천군 원덕리교회, 정평군 정평읍교회와 영흥군 마산교회 등 약 64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의 형인 차준승은 동생을 찾아서 원산에 와서 원산 광석교회의 최초의 장로로 피택을 받았다. 그는 원산 삼



일운동의 주역으로 활약을 하였다. 차을경 전도자의 함경도 삼수갑산 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사역은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의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1898년 푸트(부두일) 선교사는 함경도 내륙지역으로 순회선교사역을 하였고, 1900년 맥레(마구레) 선교사는 삼수갑산 지역을 선교여행하였다.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는 1901년에 그리어슨(구레선) 선교사와 럽(업아력) 선교사부부가 성진에 선교기지를 세웠다. 1904년에는 맥레(마구레) 선교사부부와 맥밀란(맹미란) 독신 여성선교사가 함흥에 선교기지를 설립하였다. 이들 선교사들은 한국인 전도인과 조사 및 현지 사역자를 배양해서 함경도 동부 해안지역의 주요 도시 및 내륙지역과 함경도 북부 산간오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순회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을 하였다. 차을경 전도자가 세운 갑산읍교회와 주변 예배처소들은 구레선 선교사가 순회 방문하여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

함경도 지역에서의 이들 전도인, 선교사들의 활약으로 1911년 장로교 독노회가 7개의 노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함경노회이었다. 함경노회는 산하에 함경북도대리회, 함흥대리회, 원산대리회가 있었다. 해산지역을 포함한 오늘의 양강도 지역은 함경북도 대리회에 속하였다. 1912년 제 2회 함경노회의 노회록에 “삼수갑산 교회에서 한득룡목사를 청빈(請賓)하기로 청원하다”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915년 노회록에는 갑산 고진동교회, 삼수 중평교회와 원동교회에서 선교사 영재형목사의 동사무사로서 이두성목사의 초빙과 대우를 논하고 있다. 1918년 3월에 함북노회와 함남노회의 분할이 있었다, 1925년 10월에는 함중노회가 조직되었는데 함남 북부와 양강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함중노회는 1927년 함경도의 내륙 산간지방에 교회설립을 위해서 “특별사역자회”를 조직하였다. 전도인들을 이원, 단천, 삼수, 갑산 등지로 파송하여 각처에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하였다. 1934년 함중노회 산하에 61개의 교회와 약 4,125명의 교인들이 있었다. 개마고원지역 오늘의 양강도 지역에 속한 교회로는 갑산읍교회, 개운성교회, 대오시천교회, 봉두리교회, 해산진교회, 운총리교회, 대웅동교회, 동신리교회, 등암리교회, 백암교회, 보전리교회, 석동교회, 원덕교회, 중봉리교회, 중평교회, 황칠리교회 등이 있었다.

장로교회뿐 아니라 동아기독교로 대변되는 침례교회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 시작이 된 성결교회의 확산이 있었다. 동아기독교의 침례교회는 원산을 본부로 하여 1889년부터 1949년의 기간 동안 함경도의 전 지역에 백여 개의 교회 개척과 산간오지 선교를 수행하였는데, 양강도 지역에는 삼수, 갑산, 후창, 해산진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함경도 지역에 세워진 침례교회가 한반도의 침례교회의 거의 70퍼센트 비율의 수효이었다. 동양선교회로 성결교회는 1920년대 초에 북청교회, 갑산교회, 개운성교회, 해산진교회와 많은 기도

처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성결교회는 함북지역에 17개의 교회와 함남지역에 34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들 지역의 교회 비율은 전 한반도 성결교회의 약 60퍼센트의 비율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함경도 산간오지 지역에서의 교회개척과 확산은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배양하고, 세운 한국인 현지 사역자들의 눈부신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절묘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인도하심과 크로노스적 사건들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제의 이들 지역에서의 산림자원과 광산자원의 수탈정책은 개마고원의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철도를 부설하게 하였고, 해산이 거점도시로서 철로를 통해서 함경도 동부 해안지역과 연결이 되는 해산과 길주를 연결하는 해산선(현재의 백두산 청년선)과 만포와 해산을 연결하는 북부철도(현재의 만포 청년선) 등이 개설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경원선과 함경선을 이용하여 원산과 함흥까지 가게 되고, 차량을 이용하여 길주까지 가게 되면 길주와 해산을 연결하는 해산선을 이용하여 개마고원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었다. 또한 장로교 선교회의 전도인으로 배양이 된 차을경 목사처럼 젊을 때의 악행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피조물이 되어서 평생을 전도자로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으로써 양강도의 개마고원 삼수갑산 험산준령 오지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로 여호와 이레로서 차을경 젊은이를 사울처럼 예비하여 바울로 만드시는 여호와 낫시의 승리의 손길이었다.

개마고원 일대 삼수갑산과 기타 산간오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의 편안한 삶과 사역을 마다하고, 이곳으로 부임한 장로교의 김택서, 이인규, 이학예, 한상길, 김세형, 조성규 등이 있었고, 동아기독교와 성결교의 전정섭, 정빈, 김형식, 전기찬 목사 등이 있었다. 대개의 교회가 험산준령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교인들의 삶이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지만 함경도에 있는 선교기지에서 자주 순회 전도인이 방문하였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주기적으로 있었다. 또한 심산유곡의 고립된 선교지역의 비상상황에서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확증시키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것이 그 지역 교인들의 자발적인 기도 처소 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모아져서 자주 교단을 초월한 사경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목회자를 청빙하려는 줄기찬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1948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주류 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와 감리교에 속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동아기독교와 복음전도관으로 진출한 침례교와 성결교의 교역자와 교인들은 함경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앙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것



은 1956년 주민성분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였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된 제 일차 고난의 행군시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서 해산 맞은편에 있는 압록강 너머의 중국의 장백현교회를 예비하셨다. 해산 주변의 개마고원 일대의 많은 지역에 산림자원과 광산자원 개발을 위한 노동력 확보로서 북한의 공산정권에 의해서 수만 명의 추방자들의 집단 부락이 조성됐다. 이들은 연일 각종 강제 중노동에 동원이 되었다. 이곳에는 주민성분조사 시에 기독교 가정으로 드러나서 황해도, 평양과 남포, 평안도 등지에서 추방이 된 기독교 가정들도 많이 있었다. 이곳 출신의 토착 그루터기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외지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이주해 온 교인들과의 조심스러운 접촉과 연계가 있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초반 시기는 북한 전 주민을 굶주림으로 몰아가는 가장 혹독한 시기이었다. 장백현교회는 1980년대 중국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허난성과 산둥성에서 이주해 온 중국 한족들의 이주가 있었고, 가정교회 출신 중국교인들이 소그룹으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조선족 교인들도 있었다. 1991년도에 연변지역에 살았던 최집사가 기도 중에 장백현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장백현으로 이주하여, 이미 중국 가정교회 예배처소에서 신앙 생활하던 조선족 교인들을 규합하여 짧은 시일 내에 50여 명의 신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부터 그곳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한 한총렬집사가 있었다, 그는 길림공학원(현재의 장춘공업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최집사는 장백현에 가서 조선족 교인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곳 교인들이 압록강 맞은편 해산에 친인척이 있고, 압록강을 중심으로 밀무역에 종사하며 북한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북한의 교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성경을 보낸 일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적발이 되어서 현지 책임자인 이OO자매가 압록강 뚝방에서 공개처형을 당하고, 수십 명의 비밀신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집사는 이 일로 더 이상 장백현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 1994년 한총렬집사는 결혼을 하고, 최집사를 대신하여 장백현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가 장백현교회를 섬기게 될 때 북한쪽 백두산 주변과 해산지역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나와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제난민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이 있었다. 이 당시 중국변경지역 공안당국자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약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불법 월경자로 체포되어서 송환되곤 하였다. 장백현을 중심으로 한 이런 비상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최집사의 뒤를 이어서 한총렬집사가 중심이 되어서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불법으로 도강해 온 경제난민

인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집사는 1999년 우한신학교에 학사 편입하여 졸업을 하고, 2005년도에 목사안수를 받고, 장백현교회를 조선족과 한족 성도가 거의 700여 명에 이르는 중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다. 그는 북한의 경제난민들을 돕는 가운데 북한복음화에 소명을 느끼게 되고, 특히 지리적 특성상 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개마고원 일대의 추방된 교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개마고원 일대에 흩어져 있는 추방된 교인들은 연고가 북한 전역이기에 그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의 절박한 필요와 요청을 받게 되고, 그들을 돕는 일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일어난 제 일차 고난의 행군 시기를 미리 아시고, 해산과 개마고원의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루터기 신자와 추방된 교인 가족들을 비상상황에서 도울 수 있도록 장백교회를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여호와 이레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한총렬목사는 사심 없이 계속적으로 북한 공산정권 체제하에서 고통당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동족과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자신이 또한 짊어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들과 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나이 33살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복음화의 소명이 위축되거나 쇠퇴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숙이 불붙게 된 것이다. 이것은 환란 속에서도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비록 순교의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름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닮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다. 미디안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산정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의 양팔을 지치지 않게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호와 닮으신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해산과 백두산 주변, 개마고원 일대의 광대한 지역에 해방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닮으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2015년 한목사의 북한사역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조선족 장집사의 유인 납치와 2016년 4월 한목사의 순교는 북한 내의 개마고원 일대의 신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비밀리에 활발하게 교류하던 수백의 신자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체포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다.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북녘의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사탄과 악령의



위협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홍포한 공격 속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사탄과 악령을 지옥에 던지우실 심판의 주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의 주님,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주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북한복음화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함경도 산악 오지지역에서 복음의 부름 앞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기도처소를 만들고,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순회전도인을 환영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적 헌신을 해 왔던 교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숨어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위로하고, 추방된 교인들을 돕기 위해 애써 왔던 많은 지역 전도자들이 있어 왔다. 이분들 중 대개가 신분이 드러나고, 모진 고난의 형극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곳 교인들이 기억하는 차OO 자매와 김OO 형제 등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그 희생제물을 북한복음화를 위해서 열납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북한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 많은 일꾼들이 기이하게 그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일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깊고 험준한 산악 오지지역이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와 낫시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 북중 국경도시 혜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 들어가며

혜산은 양강도의 수부이자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악도시로 1942년 삼수군과 갑산군의 일부를 묶어 탄생한 도시이다. 양강도는 지형적으로는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 안에 위치한다. 김소월의 시 “삼수갑산”의 시구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기힘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에서 그리듯 삼수갑산은 조선의 산간오지의 대명사이다. 삼수와 갑산의 마을 중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한 번도 경관이나 면서기가 찾아와 본 적이 없는 마을도 있었다. 김소월은 고향인 평북 광산에 머무르면서 이 시를 썼는데, “삼수갑산”은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강조할 수 있는 최적의 메타포였다. 그나마 혜산은 삼수갑산 중에서도 압록강변에 위치하여 수로의 이용과 국경으로서의 이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혜산(惠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산의 혜택’이라는 뜻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 18km만 가면 백두산을 만날 수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의 장백현과 맞닿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탈북, 밀수 등 수많은 비공식 교류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혜산은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혜산의 발전 과정과 공간구조를 살펴보고 국경도시로서 중국 장백과의 초국경 협력을 분석하여 북한에서 혜산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 1. 혜산의 역사와 지형

혜산시의 지명은 조선 초기 4군과 6진의 중간에 위치하여 함경남도 갑산에 위치한 혜산구자(惠山口子)라는 마을에서 유래한다. 조선 초기 혜산구자에 둘레 606m 높이 2.7m의 진이 설치되어 혜산진이라 불리게 되었다.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의 북중 국경도시와 마을의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많은 지명이 조선 초 4군 6진





### 한반도의 지붕, 고원지대 양강도

양강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원지대 개마고원과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바로 양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도의 평균 높이가 1,339m에 달할 정도로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양강도의 위치, 양강도는 지형적으로는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 안에 위치한다. (사진 출처: 통일부)

과 관련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산시의 서쪽 압록강과 허천강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파수령은 조선 초기 조선군이 고개에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킨 데에서 파수령이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파수령에 위치한 해산보와 해산시 주변의 운봉보, 위연보, 보천보 등의 지명 역시 모두 이민족을 막기 위해 쌓은 보(堡)에서 유래한다. 해산에 있는 괘궁정(掛弓亭)이라는 정자도 군사들이 화살을 걸어 놓던 곳이라는 뜻에서 괘궁정이라 불렸다.

이들 국경도시 중 해산이 중심도시가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에 활발해진 백두산 벌목작업의 영향이 크

다. 일제는 조선 삼림자원 수탈을 위하여 1907년 해산에 영림창(營林廠)을 설치하였고 1937년 수풍댐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존에 해산에 있던 영림창과 신의주영림서를 통합하여 해산에 백두영림서(白頭營林署)를 설치한다. 1934년 해산-길주를 잇는 철도로 해산선이 개통되었는데 해산선은 해산으로 모인 목재를 동해의 길주까지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삼림철도였다. 1920년대 백두산과 주변 지역을 유람한 육당 최남선은 해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해산진이 첨사 시절에도 100호에 미치지 못하던 작은 강촌이었는데, 시방 천여 호의 고을을 이루고, 수비영(守備營)에 자혜의원(慈惠醫院)에 영림창분사(營林廠分司), 1907년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을 보호, 관리,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삼림 경영기관, 필자 주)에 드높이 솟은 여러 집채들이 즐비하게 뒀이 놀랍다면 놀라운 발전이다. 그러나 일본인 거주자 백여 호 가운데 영업자란 것의 거의 대부분이 요리업자 매춘업 자임은 아무리 땃목일의 중심지라도 좀 심한 현상이었다.<sup>1)</sup>

1934년 갑산군 보혜면이 해산읍과 보천면으로 나뉘었고 1942년에는 해산읍을

비롯한 삼수, 갑산군 일부가 합쳐져 해산군이 된다. 6.25 막바지인 1952년 해산은 주변 지역을 흡수하였고 1954년 10월 행정구역 개편 시 양강도가 함경남도로부터 분리될 때 해산군도 해산시로 승격되었다. 해산시는 2019년 백두산 관광의 베이스캠프인 삼지연군이 시로 승격되기까지 양강도 내 유일한 시였다.

양강도의 면적은 약 1만 4,300km<sup>2</sup>, 평균 높이는 1,340m이다. 해산시는 양강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해산시의 해발고도는 700m에 달한다. 양강도는 8월 평균 기온 18~20℃,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 내외로 한반도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이며 개마고원 내에 위치한다.



중국 장백현에서 바라본 해산. 해산은 삼수갑산 중에서도 압록강변에 위치하여 수로의 이용과 국경으로서의 이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 2. 해산의 공간구조

### (1) 해산의 공간구조

해산시는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으로 되어 있다. 도시는 주변의 절덕산(1,341m), 치산봉(1,166m), 룡봉(1,365m), 성유덕산(1,289m), 부채산(1,410m), 안간령(1,138m), 운주봉(1,586m) 등에 둘러싸여 있다. 해산 시내의 구역은 혜명지구, 해산지구, 춘동지구, 위연지구, 연봉지구와 그 밖의 외곽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산의 지도를 보면 혜명지구, 해산지구, 춘동지구가 인접하여 있으며 북쪽으로 중국의 장백현과 산으로 가로막혀 분리된 위연지구가 압록강과 절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뻗은 철로와 도로로 해산 시내와 연결된 형태이다.<sup>2)</sup>

혜명지구에는 괘궁정 언덕을 중심으로 김부자 동상과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 김일성혁명사적관 등이 위치해 있다.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곳으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이다. 해산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천보전투는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이끄는 병력이 보천보 일대를 습격했던 사건이다. 북한정권은 보천보전투 30주년을 기념하여 1967년 6월 4일 괘궁정 옆에 탑을 세웠다. 보천보전투 기념탑 주변에는 2010년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기념탑과, 2016년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으며, 그 앞으로는 1956년 평양제1중학교에 재학중이던 김정일이 동무들을 이끌고 백두산 행군을 가던 중 들른 것을 기

1) 최남선, 『백두산 근방기』 (서울: 경인문화사, 2013)

2) 문영순, 「북한 해산시 사회·기능 공간구조 변화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16) pp. 19, 20.





해산의 지역 구분,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반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 아파트들은 6~8층 높이인데, 엘리베이터는 애초에 없었으며 수도가 나오지 않는 4층 이상은 대부분 헐값에 팔렸다고 한다. 2015년을 전후하여 북한정권은 혜명지구에 대한 재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이때 개공정 주변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움과 동시에 신축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다.


해산지구는 해산청년역과 세관을 중심으로 하여 1990년대 신흥동에 있던 시장이 확대되며 해산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신흥동 시장은 2003년 해산지구 내 해신동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시장의 발달과 함께 해산지구의 집값도 상승하여 해명지구를 앞지르게 되었다. 해산지구는 행정의 중심지인 해명지구에 인접한 이유로 일부 권력기관이 자리 잡았는데, 인민보안서를 비롯하여 양강도 재판소, 해산시 재판소, 해산시 검찰소가 해산지구에 위치한다.

해명지구와 해산지구의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해산지구의 경우 34평 아파트 가격이 11,000~15,000달러, 20평 아파트의 경우 6,500~8,000달러이며 해명지구의 경우 34평 8,000~14,000달러, 20평 4,500~6,000으로 해산지구의 집값이 더욱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그러나 코로나 직전에는 최

넘하는 김정일 사적비도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당적지도기관인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와 행정지도기관인 도인민위원회,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도·시 동맹위원회가 해명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해명지구에는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해명동, 탑성동을 중심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는 당·정 간부들을 비롯한 애국열사 후손 등 특권층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시장화를 거치며 해산의 주민들 사이에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대다수의 고급 아파트가 일

고급 아파트의 가격이 중국돈 20만원까지 상승하였다.<sup>4)</sup>

해산 동부에 위치한 춘동지구와 북쪽의 위  
 연지구는 공업지구로 노동자들이 밀집된 곳  
 이었다. 이 두 지역은 시 외곽인 특성으로 인  
 해 오래전부터 밀수가 행해져 오던 것이, 고난  
 의 행군시기 국경이 무력화되며 밀수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 두 지역에서  
 는 신흥 돈주가 다수 발생하였다.<sup>5)</sup> 위연지구는  
 해산 시내와는 산으로 가로막혀 물리적으  
 로는 오히려 압록강 맞은편 장백현 시내와 더욱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위연지역은 북한 주민들의 주요 탈북 통로가 된다. 춘동지구에는 양강도 검  
 찰소가 위치한다.



혜명동 주변의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조천현, 통일뉴스)

## (2) 예산의 교통

혜산을 비롯하여 인접한 삼수, 갑산, 보천, 운흥, 대흥단 등은 모두 산간 오지 도시로 북한에서 교통이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혜산을 비롯한 양강도의 교통사정을 일제강점기 유명 인사들의 백두산 방문에서 볼 수 있다. 1926년 최남선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백두산 근참기를 보면 최남선은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원산에 이르러 1914년 착공한 함경선을 이용하여 함흥 신포를 지나 당시 종착역인 속후까지 이동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북청, 풍산, 갑산, 혜산을 거쳐 백두산에 올랐다. 1936년 서춘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일보사의 백두산 탐험단은 연장된 나진행 특급열차를 이용하여 부령군 고무산에서 무산선으로 환승하여 무산까지 기차로 이동하였으며 무산에서 농사동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백두산에 오른다. 조선일보 탐험단은 포태리까지 내려와서 자동차로 혜산진을 거쳐 봉두리까지 이동한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sup>6)</sup>

북한의 철도 노선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을 보수 개량하며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산을 지나는 철도 노선은 백두산청년선(옛 해산선; 길주~해산), 만포청년선(옛 북부철도; 만포~해산), 삼지연선(해산~삼지연)이 있다. 북한과 중국 간 주요 무역도시인 단둥-신의주, 도문-남양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 반

4) 2024년 5월, 탈북민 김00인터뷰.

5) 문영순, 「북한 혜산시 사회·기능 공간구조 변화 연구」 pp. 11-13.

6) 김남일, 『함경도 이야기』, pp. 131-139.

3) 김병욱, “북한 해산시 부동산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의 함의,” 『부동산 분석』 7권 1호 (서울: 한국 부동산원, 2021) pp. 99, 100.





북한의 철도 노선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을 보수 개량하며 사용하고 있다. 해산을 지나는 철도 노선은 백두산청년선, 만포청년선, 삼지연선이 있다.(사진 참고: 연합뉴스)

면, 해산은 중국과는 철도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맞은편 장백이 중국에서도 고립된 도시로 철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해산의 시내 중심에 해산청년역이 있고 북쪽의 다른 시가지인 위연동에 위치한 위연역을 기점으로 백두산청년선과 삼지연선으로 나뉜다. 1988년 8월 25일 개통한 만포청년선은 북한의 철로 중에서도 선

형이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 2019년에는 위연에서 분기되어 북쪽으로 백두산 바로 아래 삼지연못가역까지의 노선이 개통되었는데 이 노선은 이후로 무산까지 연결하여 백두산 관광철도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해산에서 삼지연에 이르는 노선은 협궤선으로 북한의 다른 지역과 열차 호환이 되지 않았으며, 용량도 적었다. 2019년 삼지연 노선의 확장 시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측 장백 시내에서 보이는 위연-해산구간의 철로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공사 역시 협궤를 표준궤로 교체하는 공사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선 이외에도 지선으로 보천선(가림~대평)과 생장~용암 간의 임산철도가 있으며 해산과 인접한 백암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백무선이 있다.

노선명	구간	거리(km)	노선명	구간	거리(km)
백두산청년선	길주~해산	141.6	삼지연선	위연~못가	81.8
해산~만포청년선	해산~만포	250.2	보천선	가림~대평	31.5
백무선	백암~무산	187.4	임산철도	생장~용암	-

표 1. “북한의 관광특구 가능지역 및 타당성 분석,”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검색일: 2024. 05. 03)

북한의 열차번호는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해산은 북한 철도의 명칭과 번호의 중심이 되었다. 북한의 철도 당국은 평양→해산 열차는 제1열차, 해산→평양은 제2열차, 평양→만포→해산 열차는 제3열차, 해산→만포→평양은 제4열차로 지정하였다. 해산의 철도 노선들은 백두산 관광목적으로 건설된 위연-삼지연못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산 및 광산자원 수송을 위해 건설되었고, 산악지형으로 인해 속도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기차 사정이 좋던 시절에도 약 2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2-3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양강도는 산간지역의 특성상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주요 도로는 하천을 따라 건설된 경우가 많다.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6급 도로를 포함해도 도내 도로의 총 길이는 3,709km에 불과하다. 양강도는 고속도로 노선은 없으며 1급 도로는 길이가 152km, 2급 도로는 385km로서 1, 2급 도로의 도별 밀도만 보면 전국 평균인 56m/km<sup>2</sup>에 훨씬 못 미치는 39m/km<sup>2</sup>이다. 또한 1급 도로에서 6급 도로까지의 도로 밀도에 있어서도 북한 내 도급 행정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267m/km<sup>2</sup>(도별 평균은 493m/km<sup>2</sup>)이다.<sup>7)</sup> 1997년에는 해산시를 기점으로 하는 해산시~보천군~백암군, 해산시~삼수군~김정숙군~김형직군, 해산시~갑산군~풍서군~김형권군, 해산시~운흥군 등 4개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었다. 해산-삼지연을 잇는 도로 역시 압록강을 끼고 발달하였는데, 황폐화된 북한의 삼림 사정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위연지구의 화전령 부근 일부 구간은 고질적인 산사태로 폐쇄와 복구를 반복하고 있다.<sup>8)</sup>



해산 시내에 주차해 있는 남포-해산 사설 시외버스, 일명 씨비차 (사진: 아리랑데이 유튜브 브 화면 캡처)

등급	구간	도로 길이(km)	양강도 내 통과 지역
1급	북청-해산	212(152)	김형권, 풍서, 갑산, 해산
2급	강계~김형직	125	김형직
2급	간삼봉~백두산	35	삼지연
2급	신의주~나진	1,215(320)	김형직, 김정숙, 삼수, 해산, 보천, 삼지연, 대흥단

표 2. 양강도의 1·2급 도로 현황, ()는 양강도 내의 도로 길이임, “북한의 관광특구 가능지역 및 타당성 분석,”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검색일: 2024. 05. 03)

2018년 12월 초 해산역 앞 교차로에 교통 신호등이 생겼다. 이는 양강도 최초의 신호등이다. 새로 생긴 신호등은 해산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는데 환영의 이유는 역 앞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교통 보안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통 보안

7) “북한의 관광특구 가능지역 및 타당성 분석,”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oldData/001001008014011008/1328859789883.hwp.files/Sections1.html> (검색일: 2024. 05. 03)

8) “붕괴된 해산-삼지연 도로 보수공사 여전히 난항” RFA, 2023. 11. 0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hyesansamjiyeon-11032023095207.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hyesansamjiyeon-11032023095207.html) (검색일: 2024. 05. 06)





중국의 장백을 방문하는 이들은 압록강을 흘러내려가는 뗏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뉴스앤조이)

뜬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산 최대 시장인 해산농민시장 주변으로는 해산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주유소도 2개나 있다. 또한 해산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해산역을 출발해 위연역을 거쳐 검산동을 왕복하는 버스가 매일 4회 운영되고 있으며, 6-8인승 삼륜차들이 해산시장과 위연, 연봉시장, 삼수발전소 주변 마을을 오가고 있다.<sup>9)</sup> 북한의 교통수단 중 소위 “씨비차”라 불리는 차량은 개인 혹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사적 운송수단이다.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특성상 “씨비차”는 주로 단거리를 음성적으로 운행하던 것이 이제는 반(半)공식화되었다. 2019년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해산 시내에 해산-평양, 해산-남포 표지판을 단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장백을 방문하는 이들은 압록강을 흘러내려가는 뗏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백두산에서 벌목한 목재를 압록강 하류로 운송하는 뗏목이다. 1900년대에 들어서며 백두산의 벌목사업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갑산-신의주에 이르는 수로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 수로는 1934년 수풍댐 건설과 함께 갑산-수풍댐으로 축소되었다. 뗏목꾼들은 뗏목 위에서 떡으로 끼니를 때우곤 하는데, 중국 측 강가에 뗏목꾼들과 연결된 집들을 통해 비공식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뗏목의 속도는 삼지연 혹은 보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풍댐까지 장마철과 같이 수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보름이 걸리고,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2달이 걸린다고 한다.

해산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삼지연시 북쪽에 위치한 삼지연 공항이다. 2005년 대한민국이 지원한 90억 원과 피치(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하나. 콜타르나 원유 따위를 증류할 때 생기는 찌꺼기) 8,000톤으로 진입로와 활주로를 보

원들은 교통정리를 명목으로 차나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를 세우고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나 신호등의 등장으로 해산역 앞의 교통 보안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sup>9)</sup> 해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 보안원들은 각종 규정을 걸고 오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해 면허증을 회수하고 돈이나 휘발유를

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삼지연 공항은 국제노선은 없고 평양-삼지연 노선이 간헐적으로 운행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백두산 방문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삼지연공항을 이용하여 백두산을 관광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방문 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일행은 삼지연 공항을 통해 백두산으로 향했다. 삼지연공항에서 장군봉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장군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까지 이르는 여정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천지 관광의 공식 루트이다. 해산에서 직선거리로는 삼지연 공항이 가장 가까우나 도로 사정만을 놓고 보자면 중국의 장백산공항은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다.

### (3) 해산의 시장과 산업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산농민시장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관리사무실도 존재하였으나, 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호하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해산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내용 참조: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9) “북 주민들이 해산역 앞 신호등 반긴 이유는?” RFA, 2018. 12. 16.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e-di-12262018162742.html](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e-di-12262018162742.html) (검색일: 2024. 05. 06)

10) 강미진, 「해산농민시장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22. p. 20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sup>11)</sup>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해산은 라선특별시, 황북 사리원시, 평남 순천시, 황남 해주시와 함께 2등급으로 분류되는데, 2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000원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700-6,500원으로 조사되었다.<sup>12)</sup> 최근의 연구를 통해 보고된 해산농민시장의 장세 변동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공업품	농·토산물	잡화	음식
2015년	1,500	1,500	1,000	1,000
2018년	3,000	2,000	1,500	1,000
2022년	1,000	800	500	1,000

표 3. 강미진, 『해산농민시장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22, p.40을 요약 정리



해산시장은 중국의 장백현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입지로 인하여 사회주의 북한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시장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있어왔으나 오히려 2012-2013년 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 출처: 강동완, 평양 882.6km)

해산농민시장은 1990년대 신흥동에 있던 것이 해화동, 봉흥동, 해산동, 해흥동을 거쳐 2003년 해산동으로 확장 이주한 해산의 대표시장이다. 중국의 장백현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입지로 인하여 사회주의 북한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시장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있어왔으나 2012-2013년 1,158㎡였던 것을 6,901㎡로 확장하며 이전 소문은 사라졌다. 해산농민시장은 양강도 내 도매시장으로 보천군과 백암군, 대흥단군, 삼지연시 등과 물자교

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해산의 공식 시장으로는 해산농민시장, 연봉시장, 연풍시장, 위연시장, 마산시장 이 있다.

공식적인 시장 이외에도 소위 메뚜기장으로 불리는 비상설시장이 있는데, 이들 시장은 주로 상설시장의 물건을 사서 되파는 형태이므로 상설시장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주택과 근거리에 위치한 이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오천리의 대오천시장, 봉흥동의 봉흥시장, 탑성동의 탑성시장, 검산리의 검산시장이 있고 해산역, 해

산여관, 군사동원부, 해산공원, 해산농립대학, 김정숙사범대학 주변으로 이동 매대가 증가했다. 개인이 아닌 해산시 인민위원회와 상업관리소 등 공공기관 명칭을 단 이동봉사 매대가 2020년 중반부터 증가했는데 이들 매대는 김정숙예술극장과 보천보기념탑 주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3)</sup>

위치	시장 이름	면적(㎡)
해산동	해산농민시장(해산시장)	6,901㎡
연봉동	연봉시장	1,713㎡
연풍동	연풍시장	1,055㎡
위연동	위연시장	1,458㎡
마산1동	마산시장	1,164㎡

표 4. 해산의 공식 시장,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2022, p. 152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 3. 해산의 초국경 교류

#### (1) 해산-장백 초국경 교류

해산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측의 도시는 백산시(白山市)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다. “현(縣)”은 한국의 군과 같은 위계의 행정단위로 장백조선족자치현은 연변조선족자치주와는 거리상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중국 내 인구 대비 조선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는 장백의 조선족 인구가 24,000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조선족이었으나, 중국정부 수립 이후 하북성과 산둥성 출신의 주민들에 대한 장백으로의 단체 이주가 있었다. 이후 한족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 전체 인구대비 조선족 비율은 2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이 진출한 중국 내 대도시로의 조선족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과 2018년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의 방문취업 활성화 조치로 조선족 인구의 한국으로 유출이 심화되었다. 2022년 중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장백현 총인구 73,300



해산 시내의 상점들 (사진 출처: 데일리NK)

11)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12)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13) 강미진, 『해산농민시장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22, p.41.





해산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의 단체관광 버스

명 중 16.7%인 12,200여 명이 조선족이다.<sup>14)</sup> 그러나 장백현 내 실제 거주 조선족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산과 장백은 압록강 상류를 사이에 두고 두 도시의 도심이 마주 보고 있다. 실제로 가까운 곳은 강폭이 20m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다. 장백 측 국경의 몇몇 마을에서는 북한 월경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확성기를 통해 북한 측에 항의하곤 하였다. 1971년에는 해산시에서 도로

공사를 하느라 터뜨린 다이내마이트로 인해 장백 주민이 장애를 입은 일이 있었으며 반대로 1977년 4월 25일 장백현 도로공사 현장에서 폭파 작업을 할 때 날아간 돌에 해산시 청동고등중학교 학생 김경옥이 맞아 사망한 일이 있었다.<sup>15)</sup> 해산-장백 간 공식 무역은 1985년에 북중 교역을 위한 교량이 세워진 이후 발전했다. 백산시에 1개의 국가급 통상구(커우안, 口岸)와 3개의 임시통로(临时过境通道)가 있는데 이 중 국가급 통상구가 바로 장백현에 위치하고 있다.<sup>16)</sup> 중국통상구협회(중국 커우안협회, 中国口岸协会)는 매년 중국의 각 세관을 통과하는 인원·화물·차량의 통행량을 발표하는데, 북중 간 왕래가 가장 많은 통상구로는 철로가 놓인 단동-신의주, 투먼-남양이 독보적으로 높으며 그 뒤를 훈춘첸허-온성, 남평-회령, 장백-해산이 뒤따르고 있다.<sup>17)</sup> 장백은 백산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백산 시내까지 차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며, 인접한 다른 구역 임강, 무송과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해산-장백 초국경 교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장백과 중국 여타 지역 간 지리적 폐쇄성이다. 장백은 단동, 도문 등 주요 국경도시와 달리 철도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북측의 주요 운송수단인 철로를 통한 교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해산-장백은 공식 무역보다는 비공식 무역이 발달하게 된다. 비공식 무역, 소위 밀수의 특성상 통계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해산과 장백 사이에는 파철, 구리, 식량과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와 마약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품이 오가고 있다. 밀수가 활발하던 시기 장백 외곽 가옥들의 마당에서는 압록강을 통한 밀수에 쓰이는 물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밀수의 주요 지점에서는 밤마다 손전등으로 주고받는 신호가 오고 갔다. 장백시내를 벗어나 압록강 상류 방향으로 올라가며 번

호가 붙은 장백 측 20-24도구의 맞은편 마을들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인적이 드물고 강폭이 좁아진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초반까지도 22도구 앞 강가에는 북한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목재 가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나들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해산-장백 라인을 이용한 자동차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1980-90년대 이 지역에서 조총련에 의해 북한에 들어온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으로 밀수되곤 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다.

해산과 장백 간에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초국경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해산은 북한 최대의 황동 생산지로 2008년 기준 16.3만 톤의 동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8)</sup> 해산과 주변의 산간지대에는 황동 이외에도 금, 아연, 무연탄 광산이 분포한다. 2010년에 들어서며 중국 장백현 정부는 북한의 석영을 들여오기 위해 북-중 접경인 13도구에 임시 통상구를 설치했고 북한산 지하자원 반입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장백현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는 2011년부터 북한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양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석영 광산을 개발하고 연간 4만-5만 톤의 석영을 채굴해 중국에 들여오는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영에 대한 중국 내 반입이 시작되었다.<sup>19)</sup> 양국 자원교류에 있어 대표적인 회사는 해중광업합영회사이다. ‘해중광업합영(합자)회사’는 북한 양강도 해산청년광산이 49%, 중국 완상(萬向)그룹 산하 중광귀지(中光國際)가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2007년에 공동 설립하고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구리 광산회사이다. 완상자원유한공사가 해산청년광산과 체결한 ‘해중광업합영회사’의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향후 15년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이 2023년 4월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해중광업합영회사를 통해 중국 장백으로 실려 나가는 구리 정광은 한 달에 평균 300톤이며 광물 생산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는 매달 중국 인민폐 150위안으로 환산해 식용유나 사탕가루, 밀가루를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실물로 지급되는 물품의 물량과 시기에 따라 해산 시내의 식탁 물가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가령 2023년 8월 사탕가루와 밀가루가 지급되자 해산 시내의 밀가루와 사탕가루 값이 내렸으며 9



북중 간에 위치한 주요 세관, 통상구 (사진 출처: 아주경제)

14) 중화인민공화국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인민정부, <http://www.changbai.gov.cn/cbgk/> (검색일: 2024. 05. 01)

15) 吉林新聞 (길림신문), [http://www.jlcnwb.com.cn/qihua/content/2005-01/23/content\\_1\\_29267.html](http://www.jlcnwb.com.cn/qihua/content/2005-01/23/content_1_29267.html) (검색일: 2024. 5. 2)

16) 吉林省 白山市(백산시 홈페이지 [http://tjj.cbs.gov.cn/wzsy/tjfx/202307/t20230705\\_775935.html](http://tjj.cbs.gov.cn/wzsy/tjfx/202307/t20230705_775935.html))

17) 中国口岸协会 (중국통상구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aop.org.cn/>, 검색일: 2024. 05. 13)

18)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 개발 현황,” 2008

19) 북-중,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적극추진, VOA, 2011. 10. 11 <https://www.voakorea.com/a/article-101111-beijing-131519393/1343872.html>





장백과 해산을 잇는 다리(사진 출처: MCC 선교중국 홈페이지)

월에 식용유가 공급되자 해산 시내 식용유의 가격이 내리는 식이다.<sup>20)</sup>

1992년 7월 장백에서 출발하는 해산 1일 관광이 정식 개통되어 단체관광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10월 백두산 관광코스에 대한 북중협력 개발이 시행되며 장백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북한의 영토를 모두 통과하여 백두산 천지에 이르는 백두산 남파가 공동 개발되었으며 중국 관광객들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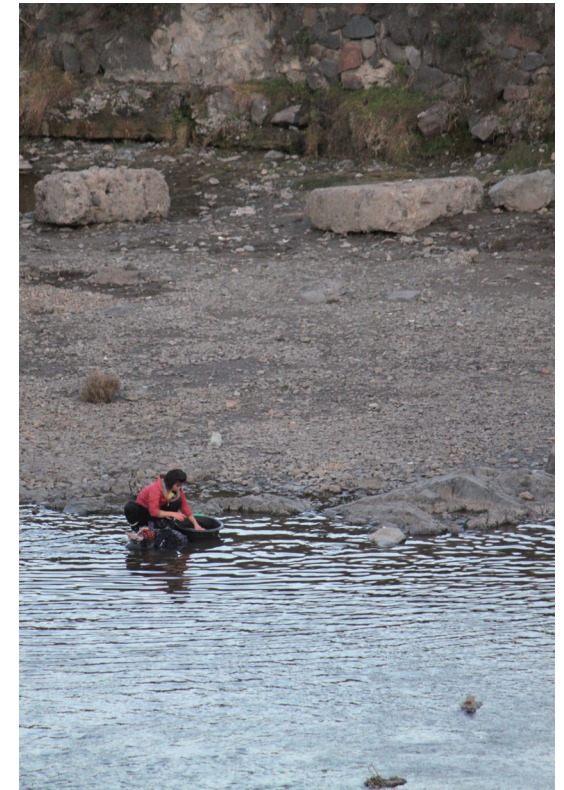
한 북한 관광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 중국여행사의 광고에 따르면 해산 1일 여행은 오전 9시 소형버스를 타고 장백 시내에서 출발하여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 사적지와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 양강도 사적관, 김정숙사범대학을 돌아보고, 해산시 소년궁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문예공연을 관람한 후 오후 3시 30분에 귀국한다. 1인당 비용은 660위안(한화로 약 11만 6천원)이다.<sup>21)</sup>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백두산 관광 도로와 연결된 압록강 중국 쪽 강변에 높이 50미터, 길이 70미터의 철탑이 세워졌다. 철탑 상층부가 압록강 쪽으로 드리워져 있고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해산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형태다. 민간업자가 건설한 이 철탑은 관광객들이 북한을 관찰할 수 있게 한 유료 관광 시설이다. 그러나 북한 측의 항의로 북한 조망 상품의 운영은 중단되었다.

## (2) 해산-남한 비공식 초국경 교류

해산은 북한의 도시 중 남한과의 초국경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개성공단과 남북연락사무소로 상징되는 남북 간 직접 교류의 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남-북간의 교류는 주로 제삼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간 정부 혹은 각급 기관의 접촉의 대다수가 북경, 심양 등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늘어나며 국내 정착 탈북자들과 북한 내 가족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식적인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착 탈북민들과 북에 남은 가족들의 교류가 남북 교류의 주류가 되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해산시 내의 주민들 중 10%가량이 남쪽에 가족, 친지 혹은 친한 지인을 두고 있다. 이들 중 남한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연락을 유지하는 비율을 10%로 잡아도 해산 주민의 1%가 남한과 초국경 교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이는 해산의 상류층이 밀수 연관 종사자와 남한에 가족을 둔 가정으로 나뉘는 이유이다. 탈북민들

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뉴스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탈북민들의 송금은 코로나로 중국의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었던 2021년에도 진행될 정도였다. 최근에는 해산역 소속의 안전원 겸 당세포비서를 비롯하여 철도 승무원, 검열원, 방송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대북 송금에 관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sup>22)</sup>

국내에 보도되는 북한 소식에 유난히도 “해산의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인용문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해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남한의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접하고 있다. 코로나 직전 해산을 나온 탈북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산 주민들 중 김정일의 가계, 김정남 암살의 소식 등 일반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 지인을 통해 들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sup>23)</sup> 이렇듯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국내정착 탈북민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교류는 남북한 초국경 교류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압록강에서 빨래하는 해산 주민

##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해산의 역사와 지형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해산은 산간오지로서 폐쇄적인 지형의 한계, 도시로부터 추방된 가정의 후손들의 비율이 높은 특징 등으로 인하여 북한 내에서도 발전이 더디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의 장백과 맞닿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해산은 탈북, 밀수 등 수많은 비공식 교류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경제와 시장이 발달하였으며, 남한 정착 탈북민의 송금으로 인하여 신흥 중산층이 발달하고 있는 도시이다. 해산과 장백이 각각 북한과 중국의 여타 도시들과 단절되었다는 치명적 약점은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극

20) 코로나로 중단됐던 북 해중광업합영회사 운영 재개. RFA, 2023. 11. 0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vidnkmine-11092023121313.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vidnkmine-11092023121313.html) (검색일: 2024. 05. 10)

21) “중국 장백현-북한 해산시 1일 관광 재개”, 통일신문, 2015. 04. 0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56>

22) 송금 브로커 돕던 해산역 안전원, 보위부에 체포돼 결국 관리소행, Daily NK, <https://www.dailynk.com/%EC%86%A1%EA%B8%88-%EB%B8%8C%EB%A1%9C%> (검색일: 2024. 05. 30)

23) 탈북민 L씨, L2씨 인터뷰. (2024년 6월)





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혜산의 초국경 교류는 남북 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시기, 코로나로 국경이 막힌 시기에도 혜산발 소식통을 통한 북한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비록 수수료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남한으로부터 송금된 돈이 혜산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혜산의 비공식 초국경 교류 거점으로서의 가능성과 위상을 드러낸다. 이렇듯 통신의 발달과 함께하는 “비공식”이라는 특징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일어나고 있는 북한-중국-한국 초국경 교류의 상황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 COVID-19 이후의 혜산농민시장의 변화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 대표)

## COVID-19 발생지 중국과 인접한 혜산시

북한 양강도는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 위치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한반도의 북쪽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가장 큰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시작되는 백두산지구가 자리한 곳이다. 이런 이유로 도의 이름을 ‘량강도<sup>1)</sup>’로 지정(1954년 10월)했으며 도 소재지는 혜산시이다. COVID-19의 발원지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북중 무역을 전면 중단했다. 양강도에서는 2020년 1월 28일부터 혜산 세관 업무가 공식 중단됐으며 1월 중에 중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간부들과 일반 주민에 대한 감염 여부를 꼼꼼히 조사했다. 한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사여행자<sup>2)</sup>의 입국도 일시 보류하는 등 국내 감염 우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양강도 위생당국은 식수와 공기,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에 심각한 경계심을 보였고 국내로 미처 들어오지 못했던 일부 수입물자들의 방역소독을 2주 이상 지속하는 등 소독에 진심이었다. 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열차와 화물차, 씨비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됐으며 도인민위원회와 도안전국은 운행증과 여행증명서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한편 도로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위부10호초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설치한 ‘이동단속초소’와 ‘위생초소’에서 사람과 물류 이동에 대한 검사를 강



구글로 본 혜산농민시장의 모습. 노란선 내부는 시장 내 매대가 자리하고 있고 외부 도로선은 자전거 주차장임.

### 참고문헌

- 고재열,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서울: 열린책들) 2021
- 김정환, 『북한은 처음이지?』 (서울: 라이스 메이커) 2018
- 김남일, 『함경도 이야기』 (서울: 학교재) 2023
- 박원호,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서울: 가람기획) 2019
- 최남선, 『백두산 근참기』 (서울: 경인문화사), 2013
- 강미진, 「혜산농민시장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22
- 문영순, 「북한 혜산시 사회·기능 공간구조 변화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16
- 박상진,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장 리뷰,” 『KDB 북한개발』 4호, 2015
- 김병욱, “북한 혜산시 부동산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의 함의,” 『부동산 분석』 7권 1호 (서울: 한국부동산원) 2021

1) 두 개의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쪽으로 흐른다는 의미를 붙인 이름

2)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의 일로 중국 친척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에게 붙여진 이름.



화했다. 현재도 COVID-19 발생 당시 설치됐던 비상방역시스템은 가동 중에 있다.

## COVID-19가 가져온 자발적 '자력갱생', 판매품 변경&매대 탈출



해산시 내의 길거리 개인 상점들

해산시의 특성상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품의 시장진입은 다른 지역보다 수월했으며 그만큼 시장 매대 상인들의 판매 품목도 수입산이 다수 있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생필품은 물론이고 먹거리에서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었다. 해산시장은 양강도 내 도매시장으로 보천군과 백암군, 대흥단군, 삼지연시와의 물자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함경남도 이북 지역의 수입물품 도매시장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함흥과 단천, 북청, 김책, 길주 등지의 도매장사꾼들과 거래가 잦은 시장이다. COVID-19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시장 이용을 하기보다 전화주문으로 배달을 받는 비대면 형식의 구매 활동을 해왔고 또 일부는 자가에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시장 이용은 사실상 뜸해졌다. 해산시장에 수입상품 도매가 용이하게 된 시기는 2022년 연말부터이다. 하지만 해산세관을 통한 수입물품 통관이 아닌 함경북도 은정군 온정리 세관과 남양세관 등 다른 지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을 도매해 와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품의 가격은 시장에 유입되는 수입품의 양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수입상품의 고갈에 도움을 준 것은 해산시 해장동에 위치한 '양순백화점'이다. '양순백화점'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백화점 내 모든 상품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시장 장사꾼들 일부는 '양순백화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수입품 도매에 열성을 보였다. 그렇다고 원하는 양이나 품목을 도매할 수 없었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게 당시 내부 주민들의 반응이다. 해산시장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봄부터이다. 맛내기(미원) 1kg당 4만 원으로 팔리다가 4월부터 매월 조금씩 하락, 6월 말에는 COVID-19 이전 가격인 1만 원 선에 정착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은 해산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게 했다.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자력갱생'이 몸에 배어 있다. 때문에, COVID-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생계 활동에 타격이 있을 걸 우려한 일부 수입품목 장사꾼들은 판매

품목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아예 시장 매대 장사에서 길거리 상업 매대로 경제활동을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품의 매매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심각한 경우 판매 품목 자체를 도매할 수 없고 결국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층의 변화

북한 시장의 상품공급 체계는 김정은 시대 들어 체계화되고 구체화됐다. 이전의 달리기<sup>3)</sup> 장사꾼들로부터 소량을 주문받아 판매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는 시장 내 국영기관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계약과 공급, 가격 등에서도 해산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 장사꾼은 해산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르려고 하지만, 수입품목이 주를 이루었던 도내 도매시장이라는 점에서 COVID-19 사태는 공급 부족이라는 악영향을 몰고 왔다. 공급 부족은 곧 수요층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주로 중국산 제품 매대가 해당된다. 이전에 중국산으로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사용했던 수요층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물가와 상품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구매 품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수요층의 이런 변화에는 북한 경공업 발전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COVID-19 발생 이후 국경봉쇄를 해오면서 저조해지는 경제상황을 도모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 과학기술발전을 강력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국산제 경공업제품들의 생산에 몰입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해산시장 내 수입품 매대 상품은 국산으로 대체됐다.

해산농민시장의 시장 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COVID-19 발생 초기인 2020년 초 북·중 무역이 전면 중단되자 중국산 상품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시장 내에는 일부 수입산 상품들이 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또 지역의 국가기관 지역기관과 협의하여 길거리 봉사 매대로 경제활동 지대를 옮기면서 시장 내 인원이 잠시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으로 시장 내 품목의 재배치가 불가피해졌으며 장사꾼들은 장사품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수입산을 주로 이용했던 수요층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부득이하게 국산제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산시

3) 다른 지역의 상품을 거주지 지역으로 나르거나 거주지역의 상품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이며 주로 열차나 써비차를 이용하는 점에서 '달린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이 전부 중국산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이 차지했던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이 컸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현재는 국산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수입품의 수요층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2023년 이후 일부 수입산들이 유입되면서 유통되고 있지만 시장 내 판매대의 장사꾼들은 중국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산제품과 수입산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 헤산농민시장의 상품별 변화



헤산농민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다양한 국산제품들

헤산농민시장의 대부분 판매 상품은 소비재이다. 북·중 국경이 가까운 지리적 환경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재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시장에 유입되던 대부분의 소비재인 중국산 의류와 가전제품, 조미료, 설탕, 밀가루, 의약품 등 다수의 생필품과 먹거리가 양적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국내산 소비재의 생산도 다급해졌다. 이미 김정은 체제 들어 국산화가 추진되었고 경제의 중심은

인민생활 향상에 두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경공업과 상업 등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COVID-19 이후에는 국내 각 기관, 단위들에서 자체의 원료기지, 연료기지, 동력기지를 정비, 보강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 건설하여 국내에서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생산재의 국산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열냉난방 체계 개발과 절약형 건축자재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헤산시에서는 양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누에치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헤산시장에서는 도내 주민들이 생산한 양털과 누에고치로 비단실을 뽑아 천을 생산하여 옷을 만드는 공정까지 순수 국내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헤산농민시장은 헤산방직공장에서 짠 섬유로 만든 의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비재가 유통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팬데믹 시기에 북한은 지역의 편직공장 등 천을 생산하는 공장들에서 마스크를 자체생산하게끔 조직지시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마스크의 부족 현상은 없었다.

COVID-19 이전에 중국산 ‘싼유’를 마시던 아이들이 국내산 ‘콩우유’를 마시고 있고 중국산 음료 대신에 국내산 탄산단물을 마신다. 중국산 밀가루로 장사를 해왔던 음식 매대 장사꾼들은 저렴한 국산 밀가루를 섞어서 수입산 밀가루로만 생산했던 때보다 개당 크기를 늘려 수요자들을 유도했다. 설탕을 대신하여 국내산 ‘8월

풀’에서 생산되는 당분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수입산 미원 대신 국내산 소고기가루(다시다)로 맛을 냈다. 다양한 종류의 국산 라면이 생산되고 있고 신발, 가전, 의약품 등이 국산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산제품의 등장은 건설 마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헤산농민시장을 비롯하여 헤산시 내의 5개 시장 모두에서 페인트, 타일, 도배지 등 건설마감재료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산화와 관련, 수입에 의존해 왔던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지 말 것과 국산 재료로 각 단위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도록 하는 등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변화

COVID-19 이후 헤산농민시장의 서비스 문화는 품목에 따라 증가했거나 감소했다. 증가한 부분은 물류 계통으로 첫 자리를 차지하며 음식 매대가 뒤를 잇고 다음으로 시장과 역전,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단거리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날라주는 손짐 운송이 그 뒤를 잇고 있다. COVID-19 발생으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됐던 시기에는 직접 이동하기보다 화물운송업자에게 주문서와 물건을 넘겨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동비용은 상품을 가져온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재도 이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COVID-19 발생 당시에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면서 이용했던 서비스이지만, 현재는 더 편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헤산농민시장에서의 노동부분의 변화는 COVID-19 이후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 흐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은 사실상 사유화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시장 분업화도 진척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기업에 소속된 개인들이 각각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업 밖에서 경제과업 수행을 하는 액상계획수행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 환율 및 가격의 안정세

COVID-19 종식 선언 이후 헤산농민시장은 차츰 이전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외화환율과 수입 상품의 가격 부분에서 눈에 띄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환율은 북한이 무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안으로 계산해 보면, COVID-19가 초기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 지역에서 1위안당 1,200~1,300원 선에서 거래됐



2020년~2023년 평양, 신의주, 해산의 위안화 환율변화

2020년	평양	신의주	해산	2021년	평양	신의주	해산
3월 28일	1230원	1225원	1270원	3월 14일	950원	940원	950원
6월 19일	1205원	1170원	1180원	6월 23일	630원	650원	670원
9월 29일	1170원	1150원	1175원	9월 22일	590원	640원	610원
12월 23일	900원	900원	980원	12월 21일	600원	640원	615원
2022년	평양	신의주	해산	2023년	평양	신의주	해산
3월 20일	660원	670원	650원	3월 31일	995원	995원	990원
6월 21일	850원	870원	860원	6월 27일	1230원	1300원	1230원
9월 20일	860원	890원	875원	9월 26일	1255원	1300원	1270원
12월 24일	960원	910원	950원	12월 29일	1275원	1320원	1300원


자료 출처: 엔케이투자개발 물가 사이트 인용, 저자 재작성함

다. COVID-19 관련 방역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속에서도 일부 입국 수속을 마친 수입 물자들이 해산 세관을 거쳐 유입되면서 대부분 이전 환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인 1위안당 1,150원~1,200원 선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2020년 1월 하반기부터 4월까지 1위안당 1,300원~1,400원 선까지 급상승하다가 5월부터 다시 이전가격대인 1,150원~1,170원 선에서 거래됐다. 위안화 환율이 1,000원 선 아래인 900원 선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시기는 11월 하순부터이며 2021년 5월부터는 6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지역으로는 평양시이며 2021년 10월 500원 선까지 하락했다. 이 시기(2021. 11 기준) 해산시의 위안화 환율가격은 1위안당 600원이었다. 해산시의 경우 2022년 6월 초까지 610원 선에서 거래되다 하순부터는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미미한 상승추세는 매월 조금씩 오르다가 2023년 4월에 1,050원 선까지 거래됐으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말에는 1,300원 선에서 거래됐다.

현재 수입 상품에서의 가격변화는 안정적인 것으로 감지됐다. 4대 수입식자재<sup>4)</sup>를 비롯하여 대부분 수입제품이 COVID-19 이전 가격으로 복귀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생산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COVID-19 이전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질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의류에서도 국산 제품의 인기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1kg 당 4만원으로 올랐던 미원의 가격은 COVID-19 이전 가격인 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3,900원~4,100원 대로 거래되었던 밀가루 가격은 21,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COVID-19 이전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5,000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설탕은 COVID-19 이전 4,000원 후반대 가격에서 10배 정도 오른 45,000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4월부터 8,000원대로 급하락했다. 현재 해산시장에서 설탕 1kg의 가격은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4) 쌀, 밀가루, 식용유, 설탕

## 현재의 모습은?

해산농민시장은 중국과 접경한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내륙지역에 비해 외부 문물을 가장 빠르게 접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중국산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산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자력갱생’을 스스로 다져온 양강도 주민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하여 국산제품으로 상품판매 품목을 바꾸거나 길거리 매대로 옮기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여 가계당 수익은 하락했어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 수익을 내고 있다. 전체 판매 품목이 중국산이었던 일부 장사꾼들은 2010년대 초중반에 저축했던 자본으로 COVID-19 시기를 버틴 것으로 엔케이투자개발 내부 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양강도 해산농민시장은 수입품이 대량 유통되는 북부 국경지역의 도매시장으로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강원도의 일부 시장들과 수입상품도매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양강도는 도내 산림의 면적이 90.8%를 차지할 정도로 수림이 많은 지역이며 산을 이용한 각종 약초와 산나물, 산과일로 수입품목을 마련하는 데 일정 도움이 되기도 했다. 수입품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시장 장사꾼들은 생활에서의 경험과 기지를 발휘하여 생계 활동을 이어 나갔으며 '고난의 행군' 때와 마찬가지로 COVID-19 시기에도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체지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양강도 주민들은 모든 생활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생활습관으로 북한에서는 며느릿감으로 북쪽지대<sup>5)</sup> 여자가 일반적으로 손꼽힌다. 그만큼 북쪽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표현으로 일축한다. 자연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COVID-19 이후의 해산 농민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내륙지역의 시장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5) 함경남도 이북지역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을 이르는 말.



#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 1. 들어가며<sup>1)</sup>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시장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로 간주하기도 한다. 2016년부터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처해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가 겹치면서 주민들 스스로 매매 장사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도 시장이 흥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 장사품 유입이 어렵고 대내적으로 반동사상문화 배격을 내세운 빈번한 검열로 인해 장사인력 그리고 장사품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그러면 혜산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수령의 혁명전통이 하늘땅에 넘친다’고 당국이 선전하는 지역으로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통제가 타 지역에 비해 강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침체 내지 하락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약 20만 명의 혜산시는 주거민 수에서 나선시나 회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중급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이 선전하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많이 있는 곳이며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 이은 우상화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혜산시 내에만도 광복 전 김일성 부대가 국내 첫 진공작전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당국이 선전하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있다. 혜산시와 인접한 군 행정지역 중에는 백두혈통의 지명을 가진 지역이 세 곳이나 된다. 과거의 신파군을 개명한 김정숙군이 있는가 하면 후창군을 개명한

1) 이 글은 등재학술지 『부동산연구』에 2021년 기고한 논문 〈북한 혜산시 부동산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의 함의〉를 수정한 것이다.

김형직군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풍산개가 유래한 지역으로 유명한 풍산군을 개명한 김형권군도 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잇닿고 있어 북한의 크고 작은 무역회사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공식적인 밀매가 왕성한 것에 따른 타 지역과 다른 특징도 있다.

이 글은 혜산시를 세 개의 기능적 중심지(권력기관 중심지, 상업시설 중심지, 산업시설 중심지)로 구분하고 부동산 가치를 살펴보고 있다.

## 2. 혜산시 중심지 변화의 역사

혜산시는 1954년에 양강도에 속하게 된 것으로 하여 북한의 타 지역에 비해 도 소재지로의 역사가 짧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전후 재건과 더불어 도시형성에서 사회주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곳이다. 도시의 주요 지점들에 기념비적 조형물이 세워지고 권력기관이 밀집한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들과 주민들의 물질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상업시설, 편의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그림1. 혜산 시내의 고층 아파트(출처: KBS)

있다. 한국전쟁 이후 혜산시 건설은 혜화동에서 위연동으로 통하는 도로와 혜산동에서 연봉동으로 이어진 도로가 만나는 T자형 구획을 만들고 안쪽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T자형 주요 도로의 연선에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안쪽에 단층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건설방식은 적은 수의 건물만으로 거리를 형성할 수 있어 도시의 전반적 윤곽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건축의 구성이나 경관의 조성 등에서 단조로움이나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혜산시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가장 편리하고, 고급주택들이 있는 지역은 국가 권력기관이 밀집된 혜명동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2003년에 들어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 시장(장마당)이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합법화되면서 혜산시의 부동산 지형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혜산시에서 가장 큰 시장은 초기 역전이나 권력기관과 거리가 먼 신흥동에 위치하였다. 이후 혜화동, 봉흥동, 혜산동, 혜흥동을 거쳐 2002년 7.1 경제 조치가 발표된 다음 해인 2003년에는 오늘의 위치인 혜산시 혜신동에 자리잡게 되었다. 혜신 시장은 오늘날 중국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도매시장으로, 당국이



승인한 시안의 5개 시장(혜산시장, 연봉시장, 연풍시장, 위연시장, 마산시장)을 리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장백현 지역에서 바라보이는 혜신시장은 압록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이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곱절이 많았다. 사회주의 북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많았으나 확장공사를 통해 지금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 구분과 특징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는 행정, 금융, 산업 등 분야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역이 있다. 혜산시 중심 시가지를 기능적 측면에서 권력기관 중심지, 상업시설 중심지, 산업시설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특정 부동산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며, ② 현재로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향후 거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이 있으며, ④ 혜산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편의시설(압록원, 은덕원, 봉화원)이 한 개씩 있는 지역이다.<sup>2)</sup>

아래 그림에서 권력기관 중심지는 C로, 상업시설 중심지는 B로, 그리고 산업시설 중심지는 A로 표시하였다. 그림의 왼쪽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간 것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이며, 압록강의 왼쪽이 중국땅인 장백조선족 자치현 지역이다. 그림에서 C에 해당하는 권력기관 중심지에는 도급 및 시급 당 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들과 혜산의학대학교, 혜산농림대학교, 혜산교원대학교, 양강도 외국어학원을 비롯한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성후동, 혜명동, 탑성동, 연봉1동이 속한다. 연봉1동 지역에는 김정숙사범대학교와 2016년 완공된 육아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김정은이 혜산지역 현지시찰 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그림에서 B에 해당하는 상업시설 중심지에는 혜산시 최대 시장인 혜신시장, 양순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혜신동, 혜장동, 혜강동, 혜흥동, 신흥동, 혜산동이 속한다.

A에 해당하는 산업시설 중심지에는 양강도의 지역 경제발전에서 중추를 이루고 있는 혜산방직공장, 혜산제지공장, 혜산광산, 혜산들쭉술가공공장, 혜산시멘트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풍동, 위연동, 연흥동, 강안동, 마산동, 춘동, 혜



그림2. 자료: 구글어스  
(2023.6.30 촬영, 2024.4.30. 검색).

탄동, 혜화동이 속한다. 이 지역의 연풍동과 강안동은 압록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중심지들에 비해 압록강의 폭이 좁고 수심이 얕다. 북중 간 국경경비대와 연계한 밀수품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 속에서 “밀수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4. 기능적 중심지 구성과 부동산 가치

권력기관 중심지는 196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건립과 더불어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신비화하고, 백두혈통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당국의 의도로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이 지역에는 도급 및 시급 당 및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관료들을 위한 전용 아파트가 있다. 1980년대 후반, 혜명동에 처음으로 권력기관 종사자 전용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이어 성후동에 건설된 8층 아파트에는 대학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과 예술인들이 입주하였다. 전용 아파트에 전기나 수도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이 지역은 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 및 운영에서 타 중심지에 비해 양호하다. 이 지역은 주민구성에서 관료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상업시설 중심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 상권이 형성되고, 이에 대응한 당국의 도시 재정비 사업과 맞물려 지역개발이 추진되었다. 지역에는 중국상품 최대 도매시장인 혜신시장이 있으며, 상인

2) 북한 당국의 주민통치방식 중의 하나는 “전형화”이다.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 단위별로 모범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본받도록 하는 것이다. 압록원이나 은덕원, 봉화원은 당국의 이러한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위치가 정해졌고 건립되었으므로 편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 중심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3. 해산의 권력기관 중심  
지에 위치한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출처: 조선향토대백과)

들도 많아 북한의 다른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해산시장의 매대 판매 가격이나 장세가 다른 도시지역 시장과 비교 하면 1.5~2.0배가량 높다.

1980년대 후반 이 지역 해장동에는 8층 아파트들이 처음 건설되었는데, 대부분 방 2칸이었다. 2012년 시장건설과 더불어 해신동, 해산동 등에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도시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는 해산역전이 있으며 시내 중심을 가로 지르는 기본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양호하다. 해산동, 해강동 등 지역은 중국국경과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 물론이고 공장건물이나 공업품 상점 건물에 대한 거래 수요가 높다.

산업시설 종사자들의 주거시설과 군부대가 있는 산업시설 중심지의 아파트 건설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연흥동의 8층 아파트에는 공장, 기업소 간부들과 모범노동자들이 입주하였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해산에서 출발하여 삼지연까지 가는 백두산 관광객들을 위한 위연역-삼지연역 간 광궐철도 공사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첫 출발지인 위연역이 해산시 위연동에 새롭게

꾸러지고, 주변에 고층주택들과 공공건물, 숙박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위연군 혁명전적지관리소, 백두산답사숙영소 등 많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진행되었다. 위연역 주변의 교통이 편리한 건물을 상점이나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시설 중심지에 속하는 위연동 일대는 강안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지역과 인접해 있어 밀수가 이루어지는 데 양호하다. 따라서 공장건물이나 상점 건물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산광산 쪽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낙후하며 주민들의 소비수준이 가장 낮다. 이는 해산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화후생시설의 착공 시기와 서비스 제공 수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재 해산시 세 곳의 중심지에는 양강도에서 가장 큰 3대 편의시설(압록원과 은덕원, 봉화원)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권력기관 중심지에 있는 은덕원은 일찍이 건설되어 2010년도에 개보수되었고 이어 중대보수 공사를 통해 신식으로 변모되었다. 상업기관 중심지에 있는 압록원과 산업시설 중심지에 있는 봉화원은

2016년 들어서야 각각 신설되었다. 압록원과 봉화원은 최근에 건설되어 모든 시설이 신식이고 서비스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사우나 이용가격을 보면 산업시설 중심지에 있는 봉화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 5. 나오며


이상에서 해산시 기능적 중심지별 부동산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지속되는 대북 제재하에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해산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은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중국으로부터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산시 상인 중 일부는 중국 장백시에 사는 친척 혹은 조선족 상인들과 오랜 밀거래로 신뢰 관계가 끈끈하다. 중국 쪽 상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이에 따라 해산시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자금의 조성고 유통이 활발하다. 또한 해산시 내 종합시장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어 시장 사용료나 종합시장 매대의 판매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이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적 참관을 위한 백두산 답사지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어 평양-해산행 급행열차가 상대적으로 잘 운행되는 것을 비롯해 밀수품이나 중국상품을 전국으로 운반하는 데 양호하다. 이러한 지리적 및 상품적 요인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4. 해신동에 위치한 해산  
시장. 해산시장의 매대 판매  
가격이나 장세가 다른 도시지역  
시장과 비교하면 1.5~2.0배 가  
량 높다. (사진 출처: 아시아 프  
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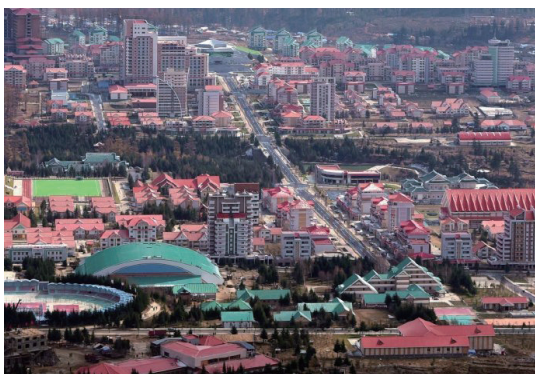


# 혜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조성

김성배 (송실대 명예교수, 한하나로연구소 소장)

## 1. 문제의 제기

북한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국가 간 초국경 협력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남쪽에 남북한의 국경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사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경협력사업이다. 전자의 대표적 경우로는 개성공단의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어 2016년 전면 중단될 때까지 16년 간 진행되었다. 반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에 시작되어 이후 육로관광으로 확대되면서 증대되다가 2008년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피격사건이 있는 후에 중단되었다.



삼지연 시내, 최근 몇 년 사이 감정은 정권에 의한 삼지연 개발이 가속되고 있다.

후자의 사례로는 압록강 유역에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계획과 황금평경제지대개발계획 등의 초국경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신의주 특구계획은 북중 간 황금평지대 개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이 특구계획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협력으로 전환하여 2010년에 라선 및 황금평경제지대 공공개발 공공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의 공동관리를 위해 북중 공동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두만강 유역에는 북·중·러 및 일본이나 몽골 등 관련 국가의 수가 많은데, 이 지역에는 북중 간의 라선 공동개발계획과 다자간 개발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의 초국경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라선 공동개발계획은 황금평경제지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고 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다자간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으로 시작되어 2005년에 오늘날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승격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북중 접경지역 가운데 그간 개발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중부접경지역이다. 이 지역은 백두산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데, 행정구역으로는 북한 쪽의 양강도와 그 중심지로서 혜산시 그리고 삼지연군 등과 중국의 안도현, 백산시, 통화시 등 길림성에 속하는 지역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중 중부지역의 초국경 협력 사례로서 혜산시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혜산시를 포함한 백두산 주변지역의 생태자원과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왜 초국경 생태관광특구인지를 논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혜산시 주변의 생태관광자원

북한의 혜산시는 백두산 아래에 있는 국경도시이다. 혜산시의 동쪽은 운흥군, 서쪽은 삼수군, 남쪽은 갑산군, 북쪽은 보천군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장백조선족 자치현과 마주하고 있다. 이전에는 함경도에 속했지만, 1954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량강도로 바뀌었다. 그 때 혜산은 양강도의 유일한 도시로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혜산시의 면적은 277km<sup>2</sup>이고 인구는 약 20만 명이며 행정구역은 23개 동 4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찍은 백두산 안내판, 혜산 주변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백두산 이외에도 천지, 내곡온천, 천지원, 삼지연문화회관 등의 관광지와 삼지연 원시림, 온천, 해돋이, 천지 호반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혜산의 초국경 협력사업으로 생태관광특구조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혜산시 주변에 풍부한 생태자원이 있고, 혜산시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장백현에도 그 못지않게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혜산시는 압록강과 백두산을 품고 있어 생태관광의 보고이다. 압록강에 인접하다 보니 백두산 기슭에서 아름드리나무를 벌목하여 뗏목을 만들면 혜산이 뗏목의 출발지였고, 그 종착지가 신의주였다. 또한 주변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백두산 이외에도 천지, 내곡온천, 천지원, 삼지연문화회관 등의 관광지와 삼지연 원시림, 온천, 해돋이, 천지 호반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혜산시는 문화적 자원도 풍부한 곳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혜산시는 김정일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서 찍은 백두산의 모습

생가와 혁명전통 교양의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지역이다. 다리를 통해 중국의 장백조선족 자치현 자치현과 인접하고 있어 해산시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해산에서는 6천 년 전 신석기 시대 집터에서 나온 유물들이 발굴되어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역이 해산시이다.

해산시와 백두산과의 관계를 보면 해산은 역사적으로 백두산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조선시대에

조선 대표 김경문이 1712년 청나라 대표 목극등 일행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 등정에 나섰을 때 해산에서 출발하여 등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26년에 최남선 일행 200여 명이 백두산 등반에 나섰을 때도 해산에서 출발해서 올랐다고 한다.

최근에 북한은 삼지연군에 군민 공용공항인 삼지연 비행장을 건설하여 백두산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지연 공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로는 백두산을 위시하여 이명수폭포, 건창, 백두폭포, 백두다리 등이 있다. 만약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북한을 통해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면 삼지연 공항을 통해 관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백두산의 생태관광이 본격화될 경우에 삼지연시는 공항이 협소하고 주변 시설이 부족하여 해산시가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백두산 초국경 생태관광특구 개발

백두산의 풍부한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백두산 지역을 초국경 생태관광특구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은 관광의 한 형태로서 자연에 대해 책임있는 접근 및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요 방안으로는 방문객의 교육, 생태적 자원의 보존을 위한 자원 확보, 지역 공동체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자율권 확충 그리고 문화와 인권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모두 백두산 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북한은 백두산의 일부를 1959년에 백두산 자연보호구로 지정했으며, 1976년에는 이 구역을 확장했다. 중국은 1958년 천문봉(2,650m) 부근에 기상대를 설치하고, 1960년에는 2,100km²를 장백산 자연보호

구로 지정했다. 북한과 중국 측의 자연보호구는 198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백두산에는 173종의 조류와 동북호랑이, 반달곰, 담비 등 300여 종의 각종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만 볼 수 있는 미인송을 비롯해 주목과 들메나무 등 희귀 나무류와 산삼, 영지 등 불로초로 불리는 한약재들이 번식하고 있다. 백두산은 그 고도에 따라 침엽활엽수대, 침엽수대, 사스레나무수대, 고산수대로 뚜렷이 분포된 초목의 생태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 중국은 중국쪽 백두산 지역, 즉 장백산 구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했고 지난 3월에 승인을 받아서 이 구역은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지질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질유산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상향식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모색한다.

그러면 백두산 지역에 생태관광특구의 개발을 위해서 왜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가? 우선적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초국경 생태관광이 필요한 것은 백두산이 북한과 중국의 양 지역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경이 확정된 현재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의 영토 사이에 있다. 백두산 봉우리 16개 가운데 7개 봉우리는 중국 땅에, 6개는 북한 땅에 있다. 나머지 3개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걸쳐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경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양국은 일종의 죄수의 고민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양국이 해당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상호 믿을 수 있는 약속에 근거하여 함께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수익성 있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개발한다면 보존의 의미가 낮고, 반면 자신이 나서서 개발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처럼 생각한다면 백두산 지역이 환경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찍은 해산 청소년들의 공연. 중국인 관광객의 해산 1박 2일 여행코스에는 해산예술학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순서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찍은 해산 어린이의 공연. 중국인 관광객의 해산 1박 2일 여행코스에는 해산예술학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순서가 있다.





백두산의 폭포(사진 출처: 롯데투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와 환경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파괴의 문제는 중국 및 북한 양쪽 지역 모두에게 관찰되고 있다. 우선 연길녹색연합은 2000년 보고서에서 백두산 관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와 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버린 생수병, 비닐팩, 담뱃갑, 껌초, 콜라 주스캔, 건전지 등 관광쓰레기의 증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림 목에서 발견된 외국 합자 호텔의 공사장에서 버려진 건축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문제, 하천에 버려진 페인트 통, 페타이어, 파손된 건축자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장백산에서 광산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쪽 장백산 주변 5개 광산구역에서 노천 광갱 13곳과 폐석 퇴적장 12곳, 맨땅이 드러난 산 면적인 317만㎡, 쌓여있는 폐석이 3320만 톤에 이른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것이다. 중국의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바이산시 당국, 즉 지방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어떠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은 그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북·중 도시 간 초국경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앞서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은 각각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백두산 내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증대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는 등반객들의 보존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행동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핵심적 노력으로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의 구현이 될 것이다. 앞서 다양한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관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보존구역의 지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지정에 대해 책임지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문제로서 신뢰할 만한 약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에 대해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원의 가치에 대해 등반객이나 주민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이나 자원의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상으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자원, 즉, 지질, 지형, 생물, 고고, 역사 및 문화자원을 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의 등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장백산 구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했고 지난 3월에 승인받아서 중국 쪽 백두산 구역은 이제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북한은 중국보다 일년 먼저 신청했지만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백두산 지역도 머지않아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될 것이다. 하지만 백두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보다 확실하게 보전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으로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재등록한다면 그 관리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백두산 생태관광특별구역을 둘러싸고는 북한의 혜산시와 중국의 장백현이 그 당사자들이 된다. 백두산 생태관광특구의 관리를 위해 두 도시 간 초국경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노력과는 별개로 혜산시와 장백현이 특구의 공동관리 규약을 개발하는 등 초국경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들은 해당 생태자원의 보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혜산 세관(사진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 백두권역의 관광자원 실태와 특징

강동완 (동아대 교수/유튜브 강동완TV 운영자)

## 1. 들어가며



혜산시 전경. 사진 아래쪽에 중국 장백현과 혜산시를 연결하는 다리와 국경 세관이 보인다

양강도는 북쪽으로 중국 장백현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맞대고 있다. 남쪽은 함경남도, 동쪽은 함경북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자강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전체 면적은 약 1만 3,880 km<sup>2</sup>로, 1954년 10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함경남도 북부 산간지대인 삼수군, 갑산군, 풍산군 등과 함경북도 서부 산악지대인 무산군, 백암군 그리고 자강도 후창군의 일부 지역을

합쳐 통합했다. 양강도라는 이름처럼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지역을 동서로 양쪽에 끼고 있다.

무엇보다 양강도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으로 유명하며,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김정숙군, 김형직군, 김형권군 등이 소재한 곳이다. 도당위원회는 혜산시이며 신파(김정숙군)를 비롯해 보천, 삼지연, 대흥단, 백암, 운송, 갑산, 삼수, 풍산(김형권군), 풍서, 토평(김형직군)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관광 홍보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은 북한 전역의 관광지를 평양·서해지구·북부지구·동해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북부 지구는 백두산이 핵심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다. 백두권역은 양강도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남서쪽의 혜산시와 북동쪽의 대흥단군, 남쪽의 보천군을 아우르는 일대의 지역이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며, 1950년대부터 '백두산 혁명 전적지'를 정비해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조성해 왔다. 이에 따라 매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백두산 일대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관광'이 아닌 '답사'를 위해서 찾는다.

## 2. 혜산시의 주요 특징 및 현황

혜산시는 양강도의 도당위원회가 소재한 도시로 중국 장백현과 경계를 이룬다. 혜산시는 '산의 은혜를 입었다'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험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백두산과 불과 18km 거리에 위치해 백두산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압록강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불과 몇 걸음만 떼면 중국 장백현에 닿을 만큼 가깝기에 중국과의 밀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장백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은 대부분 중국산 생필품이 주를 이루고, 북한에서 나가는 물품은 이 지역에서 나는 약초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지역 학생들이 '농촌동원'처럼 '약초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혜산시를 비롯해 양강도의 기본 산업은 목재가 주를 이룬다. 백두산 지역을 포함하는 양강도 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1차 산업인 임업 위주의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산악지형으로 산세가 험준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혜산시가 경제적으로 잘살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은 건 고난의 행군 때부터라고 한다. 내륙지역은 식량이 부족했지만 혜산은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그나마 식량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식량이 결국 이후에는 북한 내륙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혜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보천보전투기념탑을 꼽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보천보전투기념탑 주변의 길을 둘레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변으로 특각과 식당 등이 있다.

혜산시는 중국과 가깝고 백두산과 인접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백두산 권역 관광특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다. 백두산 인근 혜산시에 조성계획 중인 '혜산 경제개발구'는 신장리 일대 약 2km<sup>2</sup>에 관광 휴양·무역·현대 농업 등이 집약된 경제개발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 인근 삼수호의 관광 오락업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2013년도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혜산 경제개발구는 단지 경제개발구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산 지구 관광, 칠보산 지구 관광, 보천 온천관광, 삼수호 유람 관광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설계되었다.

## 3. 향후 과제

양강도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양강도 지역은 북한 내륙 방향에서 접근할 경





해산 세관건물과 보천보전투 기념탑 전경

우 험준한 산악지형이며, 반대편은 중국과 압록강을 맞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

특히, 양강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해산시는 백암령이라는 고갯길로 막혀 있어 그 접근이 쉽지 않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사람들, 해산 사람들은 일생에 백암령을 넘자’라는 구호를 사용할 정도로 산악지형의 산세가 가파르다고 말한다. 백암령은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와 양강도의 경계에 놓

인 곳으로서 양강도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 통로이지만 험준한 산세로 인해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 북한에 있을 때 철도 승무원 일을 했다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가설한 철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열악한 시설인 데다 백암령의 산세가 험해 사람이나 물자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암령에 관한 내용은 양강도 해산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앞서 탈북민 증언이 2008년 탈북이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이 지난 현재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증언과 같이 2018년에 탈북한 해산 출신 여성 역시 동일한 내용의 증언으로 백암령을 넘어 해산과 양강도 지역으로 가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산에서는 백암령을 넘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백암-합수-남계 정거장이 있다. 백암역을 지나서 합수 쪽으로 가는 곳이 오르막인데 기차가 전압이 약하니까 넘어가기 힘들다.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갔다 후진해 오고를 반복한다. 기관차가 넘지 못해서 기관차가 한 대 더 와서 령을 넘는 정도다(여성, 40대, 2018년 남한 입국).

백암령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산세를 고려할 때 양강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항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라 할 수 있다. 물론 버스와 기차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압록강과 험준한 산세를 고려할 때 육상 교통도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 지역 어디를 가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사적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적지 주변은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역사는 왜곡, 날조된 것이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김일성 일가의 항일 혁명사적지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에 밀집해 있다.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활동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혁명사적지 주변은 북한 당국이 관리를 하며 산림이나 주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북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혁명사적지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관광이 아닌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존 가치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백두권역 지구 혁명사적지 도로 주위에는 ‘아름다운 이깔나무와 들쭉발이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백두산 주변의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따라 현재 조성된 지역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역 주변의 자연경관과 산림 등의 가치를 고려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산 지역은 들쭉과 백두산 생수 등이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지역 특산물과 자연자원을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개발 및 관광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화에 기반을 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다. 🐟

# 혜산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 1. 해방 이전 함남 북부(현재의 양강도) 지방의 교회

### (1) 함남 북부(현재의 양강도)지역으로 복음의 전래

1885년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후 초기의 선교사들 대다수가 수도인 서울에 정착하여 서울에 본부를 구축한다. 이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선교사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90년을 전후하여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중 함경도 북부지역은 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복음이 전해진다.

1894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함경도 원산에 정착한 이후 조선인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을 전도인으로 임명하여 함경도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차을경은 1896년을 기점으로 함흥, 영흥, 정평, 단천, 갑산 등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이후 장로회 선교교회들 간의 선교 구역 재배치로 인하여 1898년 함경도 지방이 캐나다 장로회의 구역으로 조정된 뒤에도 푸트(Foote, William R. 부두일)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에 의한 순회 사역이 함경도 내륙 지방에서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함경도 순회전도와 관련된 구체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산, 함흥, 성진, 청진, 경흥에 이르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양강도지방을 비롯한 함경도 내륙지방에 대한 보고는 1900년 맥레(D. M. McRae, 마구레) 선교사가 성진에 머물며 삼수, 갑산지역을 여행했다는<sup>1)</sup> 기록이 거의 유일하다.

190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수가 더욱 늘어났고 함경북도 성진에도 외국인의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1901년 5월 18일 캐나다장로회 소

속 그리어슨(R. Grierson, 구레선) 선교사가 함경북도 성진으로 이주하여 함경북도에 정착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다.<sup>2)</sup> 곧이어 캐나다장로회 소속 럽(A. F. Robb, 업아력) 선교사 부부도 성진으로 이주한다. 이들의 정착과 더불어 캐나다 장로교의 성진 선교부가 설립되었고 원산과 다른 관북지방에서 이주해 온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다. 1903년에는 맥레 부부와 독신 여성 선교사인 맥밀란(K. McMillan, 맵미란) 선교사가 함흥에 정착한 후 1904년 함흥에도 선교기지가 세워진다.<sup>3)</sup> 당시 함경도에 정착한 캐나다 선교사들은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출신이 많았는데, 노바스코샤와 함경도는 위도가 같고 기후가 비슷하였으며 바다에 인접한 지형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낙후한 환경도 유사하였다. 특히 고향에서 농장일과 대장장이 경력에 있었던 그리어슨과 맥레는 함경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sup>4)</sup>

1907년 결성된 장로회 독노회의 회록에도 양강도 지역에 관한 보고는 매우 희박하다. 1회에서 4회까지 함경대리회 관련 보고는 대부분 원산, 함흥, 성진의 교회들과 연해주, 간도선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1911년 제5회 독노회록에 “한득룡 씨는 리원, 단천, 삼수, 갑산, 성진 남편 각 교회에서 오아렐 씨와 동사 목사 되나 본 대리회가 몇 교회만 일하게 한 일”<sup>5)</sup>의 내용이 있다. 1911년 독노회의 가을노회의 결정으로 조선에 7개의 노회가 조직되며 함경노회가 생겨났다. 함경노회는 산하에 함북대리회, 함흥대리회, 원산대리회의 3개 대리회를 두었는데, 혜산을 비롯한 지금의 양강도 지역은 함북대리회에 속했다. 양강도 지역과 관련된 보고는 1912년 제2회 함경노회의 회무 결의사항 “함북대리회에 삼수 갑산교회에서 한득룡 목사를 청빙 청원하고....매월 25원씩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청원하매 정사위원회에 보내기로 하다.” “갑산 명덕교회와 단천읍교회에서 장로 1인씩 허락받기로 청원하매 청원을 받고 허락하기로 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1915년 8월 5회 갑산 명덕교회 피택될 장로 문성기 씨를 문답하고 장립하였사



양강도의 위치(사진 출처: 두산 백과사전)

1)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 117, 윌리엄 스코트는 1914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이다. 그가 사역기간 중에 작성한 2,000여 편의 글이 2009년 국내에 번역되어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p. 116, 117.

3) 김윤성, “함경도지역교회사,” 『한국기독교와역사』 제3호 (1994) pp.30-33.

4)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 27.

5) 1911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록을 『함북노회10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 함북노회, 2014) p. 73에서 재인용.





차을경(왼쪽)과 맥레 선교사 (오른쪽), 차을경은 1896년 을 기점으로 함흥, 영흥, 정평, 단천, 갑산 등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

오며”, “삼수갑산교회에서는 전도인을 세워 전도하는 일이 오며”, “신학준사 이두섭 씨는 갑산 고진동과 삼수 중평과 원동 세 교회에서 월급 25원으로 작정하고 영재형 목사와 동사무사 되기를 허락한 일”등의 내용이 있다. 기록에 나오는 1910년 이전 양강도 지방의 장로교회는 1910년 구례선, 남승오 등에 의해 함남 갑산군 장평면 북부리에 세워진 갑산읍 교회가 유일하다.<sup>6)</sup> 이 교회는 차을경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로 개척 당시 성진 선교부에 거주하던 구례선 선교사가 책임을 맡게 된다. 함경남도 산간오지 개척의 역사를 살펴보면 차을경, 차준승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두 사람은 형제로 동생인 차을경은 함경도 고원군의 덕지교회, 홍원군의 홍원읍교회, 영흥군의 영흥읍교회, 단천군 원덕리교회, 정평군 정평읍교회, 영흥군 진흥교회, 영흥군 마산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다. 차준승은

1869년, 차을경은 1871년 평북 박천군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차을경은 20세에 마을 유부녀를 겁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함경도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1892년 전도를 받고 1894년 세례를 받는다. 이후 그는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896년부터 1909년까지 갑산읍교회를 포함하여 함경남도 지방에 64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차준승은 죄를 짓고 도피한 동생을 찾아 가족과 함께 갑산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원산에서 동생을 만나 전도를 받는다. 그는 동생의 선교활동을 돕는 한편 사업으로 성공하였으며 원산 광석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어 1919년 3.1운동 시 원산의 3.1운동을 이끌었다.<sup>7)</sup>

## (2) 함중노회의 조직과 함남 북부(현재의 양강도)지역 선교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 진출한 각 교단과 선교회가 간도, 연해주 선교에 눈을 돌리며 청진, 회령, 온성 등의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당시 그리어슨 선교사는 원산의 선교부를 폐쇄하고 역량을 회령과 간도지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푸트 선교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sup>8)</sup> 이러한 논의 속에 현재의 양

강도에 해당하는 함경남도 북부지역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오히려 선교사역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 함경도 장로교의 교세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1918년 3월 함북노회와 함남노회의 분할이 완료되는데 이때 교세 확장은 주로 함흥, 성진, 청진, 나진 등 해안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분립을 통해 양강도 지방은 함남노회에 속하게 되었다. 1925년 10월 4일 함경북도 성진에서 함중노회(咸中老會)가 조직되어 현재의 함남 북부와 양강도 지방을 관할하게 된다. 이것은 그해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제14회 총회가 함북노회의 노회분립 청원을 허락한 데 따른 것이다. 함중노회의 첫 임원들로는 노회장 강학린, 부회장 프록터(Samuel J. Proctor, 부녹도), 서기 이효근, 회계 김원배 등이었다. 이때 초대 노회장으로 피택된 강학린 목사는 3.1운동의 성진지역 지도자로 옥고를 치른 인물로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강수지씨의 증조부이다. 함중노회의 지경은 함북의 성진·명천·길주의 세 개 군(郡)과 함남의 이원·단천·삼수·갑산 등 네 개 군을 합친 함경도의 중간지대였다. 그 가운데 성진·명천·길주는 1917년 함경노회 분립 때 함북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함남노회에 속하였다가, 1921년 함북노회에서 간도노회로 분립시킬 때 함남노회에서 함북노회로 이관된 곳이었었는데, 1925년에 이르러서는 함중노회 설립의 중추가 되었다. 함중노회는 1927년 내륙 산간지방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집중적인 전도를 위하여 특별사역자회를 조직한 후 단천, 이원, 삼수, 갑산 등지에 전도인을 파송하였다. 함중노회의 중심지는 성진(현 김책)이었고 노회도 늘 성진에서 개최되었다. 양강도 지방은 교통이 매우 열악하여 조선 혹은 중국의 다른 도시와의 왕래가 어려웠으나 1933년 함남 북부(현재의 양강도)의 삼림자원 수송을 위해 일제가 길주-함수 간 철도가 개설되고 1937년 길주-해산 구간이 완공되어 함경도 해안도시와의 왕래가 용이해졌다.

1929년 당시 함중노회 내의 교인 수는 2,933명(교회 수 51개)이었는데, 5년 후인 1934년에는 4,125명(61개)으로 늘어났다.<sup>9)</sup> 그중 해산을 비롯하여 삼수, 갑산 지역에 있던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다. 갑산읍교회(1910, 그리어슨), 개운성교회(1926), 대오시천교회(1910년 기도처로 설립되어 1940년 조직교회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봉두리교회(1932), 해산진교회(1916, 해산교회라고 불리기도 함), 운총리교회(1920, 雲寵里, 과거 갑산에 속하였으나 현재 지명으로 해산과 운흥의 중간에 위치, ‘운옹리’로 오기되는 경우가 많음), 대웅동교회, 동신리교회, 등암리교회, 백암교회, 보전리교회, 석동교회, 신갈파교회, 원덕교회, 인인정포교회, 중봉리교회, 중평교회, 천평교회, 황철리교회 등이 있다.

이 중 갑산읍교회는 현재 양강도 지방 최초의 조직교회였으나 1918년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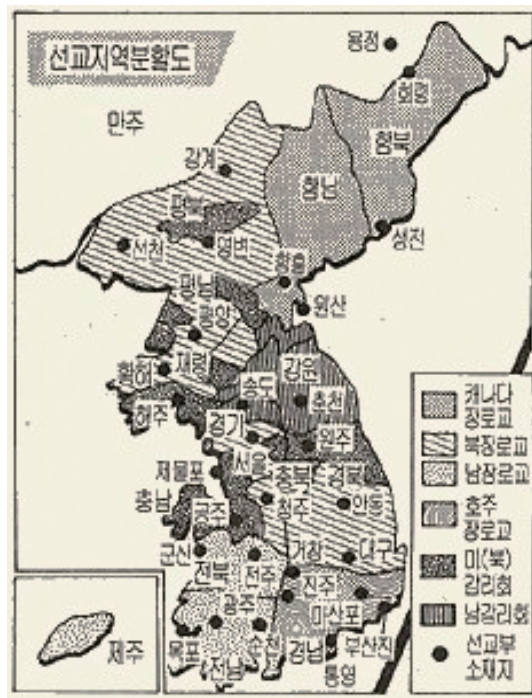
초대 함중노회장 강학린 목사

6)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상』,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p. 393.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은 1928년에 출판되었고, 하권은 1930년에 교정이 완료된 후 1968년에 출간되었다. 이를 한국기독교사연구소가 2014년과 2017년 한글로 번역(한자-우리말 대조) 출판하였다.

7) 박용규, “차을경, 차준승 형제,” 『기독교사상』 통권 431호 (1994. 11). p. 270

8)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p. 158.

9)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s://www.kidok.com>)



선교지 분할 지도

목사가 없이 유지되었다. 1918년 이재연 목사가 부임하여 성도가 늘어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등 부흥하였으나 3.1운동이 끝난 후 이재연 목사가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사임을 하게 되고 교세는 다시 위축되었다.

현재의 해산 시내구역은 1934년까지도 갑산군 보혜면이었는데, 1934년 보혜면이 보천면과 해산읍으로 개편되었고 1942년 해산군이 되었다. 해산 시내에 위치한 해산진교회는 1916년 김택서와 이인규에 의해 개척되었다. 김택서는 이후 1922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진의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 해산진교회는 1918년 부임한 전도부인 신마리아의 활약으로 성장했으며 1920년에는 1200원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운총리교회는 1920년 운총리에 교원으로 부임한 이학예, 한상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두 사람의 전도로 30

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해산진교회의 사경회에 참석했던 운총리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매입하였으며 동시에 조사 김세형의 사역으로 유망한 교회로 성장한다.<sup>10)</sup> 1922년에는 운총리교회의 이학준 등 5, 6인이 해산진교회 부흥사경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금식과 연보를 하여 전도인 조성규를 해산에 파송하여 40명의 성도가 늘어난 일이 있었다.<sup>11)</sup>

### (3) 장로교 이외의 교단

말콤 펜윅의 동아기독교는 오지선교에 집중하여 원산으로부터 경흥, 회령 등 함경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현재의 양강도 지역에도 삼수와 후창에 각각 구역을 두었고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동아기독교의 북한지역 자료가 대부분 소실된 관계로 교회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며 이 지역과 관련된 정보로는 유일하게 삼수지역에 삼수영성교회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해지고 있다.<sup>12)</sup>

양강도 지역의 첫 성결교회는 개운성성결교회이다. 개운성성결교회는 북청교

회에서 믿음생활을 하던 전정섭 성도가 삼수군 관흥명 개운성리로 이사한 후 전도하여 수십 명의 구도자를 얻은 것에서 시작되었고 북청교회는 20원을 들여 가옥을 매수하여 1928년 북청교회의 지교회로 설립하였다. 당시 북청교회의 개운성성결교회 시찰기에는 조사위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하여 3일 만에 도착했으며 성도가 40명이 회

집했다.”, “8월 하순에도 기후가 한랭한 관계로 시찰원들은 의복에 곤란을 당하였다” 고 보고한다. 동양선교회 교역자의 부족으로 개운성교회는 담임교역자가 없이 운영되던 중 1940년 폐지를 신고하였다.<sup>13)</sup>

해산진성결교회는 1931년 김형식 전도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해산진 장로교회 출신의 성봉수, 방옥순 집사 내외가 개척 멤버로 함께 했으며 청소년 신도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sup>14)</sup> 해산진성결교회는 교역자의 이동으로 1934-1935년 2년간 교역자가 없이 운영되어 폐쇄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1936년 전기찬 전도사가 부임한 후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전기찬 전도사는 부임 직후부터 사경회를 열고 한편으로는 경기도 충청도 등의 교회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어 27평의 예배당을 건축한다. 매년 이어진 부흥회를 통해 온 교회에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있었으며 1939년에는 맹인이었던 안복근 자매가 시력을 회복하는 신유의 역사가 있었다. 이후로도 1939년에는 예배당을 증축하고 사택을 건축하며 교회가 성장하였으나 1943년 12월 29일 일제에 의한 성결교 해산 조치로 인해 해산진교회도 문을 닫게 된다.<sup>15)</sup>



해산시, 운흥군 보천군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함해노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함해노회 100년사 자료집』 (서울: 2014);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0)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 pp. 606, 607.

11)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 pp. 576, 577.

12) “말콤 펜윅의 북방선교 3” 침례신문, 2020. 01. 16. <http://www.baptistnews.co.kr/news/article.html?no=12731> (검색일: 2024. 05. 21)

13) 이한복, 『북한성결교회사』 pp. 161-163.

14) 해산군지편집위원회, 『해산군지』, (서울: 해산군민회, 1999) p. 146.

15) 이한복, 『북한성결교회사』 pp. 186-190





김정숙군, 삼수군, 갑산군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함해노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함해노회 100년사 자료집』 (서울: 2014);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해방 직후 각 교회는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나 38선 이북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다. 이때 장로교, 감리교 등 서구에서 들어온 종파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고 공산당 집권 초기 1년여간 자생적인 성격이 강했던 동양선교회(현재의 성결교), 이용도의 예수교회 등에 대한 핍박은 약했던 기간이 있

다. 해방 직후 성결교 몇몇 목회자들이 38선 이북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이 있는데, 해산에서는 전기찬 목사가 해산진교회를 재건하여 목회를 하던 중 1948년 공산정권에 의해 순교하였다.<sup>16)</sup>

## 2. 해방이후 현재까지 양강도(과거의 함남 북부) 지방의 교회

### (1) 해산으로 추방된 성도들

L자매와 L2자매는 각각 해산에 인접한 H지역과 U지역의 산골마을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두 지역 모두 대도시에서 추방된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두 자매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던 시절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마을에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온 할머니가 있었던 말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침이면 단정하게 옷 입고 체조하고 아주 깔끔하게 살았습

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아서 수예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수예로 만든 것 중에 푸른 풀밭에 머리 긴 건장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양떼들과 서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너무 시시해 보여서 ‘이런 그림이 팔리겠냐’고 물으니 ‘깊은 뜻이 있는 그림이다’라고 대답하고 웃더라구요. 남한에 와서 교회에 가서 보니 그거랑 꼭 같은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지팡이 짚은 머리 길고 수염 긴 남자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sup>17)</sup>

저랑 가까운 친구도 OO에서 추방된 집안 아이였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서 추방됐어.”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일요일이면 흰 옷 입고 어디 갔었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요.<sup>18)</sup>

Y 자매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큰고모 댁에서 주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 9살이 되던 1956년 9월, 평양에서 학교에 입학했고 평범하게 살았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여파로 북한에 유치원이 없을 때 Y 자매는 1956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늘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할머니가 유년 시절 데리고 갔던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Y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우리 할머니하고 유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손을 잡고 저를 데리고 작은 집(초가집에 들어가면 약 20명 정도 사람들이 둘러 모여 있었다. 그러면 어떤 중년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 할머니가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한참 하고서는 중절모를 돌리니깐 우리 할머니가 그 중절모 안에 돈을 넣었다. 지금 생각하면 헌금을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두세 명이 빠져나갔고 밖에 울타리 안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이때가 약 1954-1955년 쯤이었다.

할머니는 북한말로 대박같은 책 (성경)을 갖고 다녔는데 집에서 은밀하게 보관하셨다. 어느 날 할머니는 Y 자매에게 그 책을 헛간에 썩

17) 탈북민, L자매 인터뷰 2024년 6월.

18) 탈북민, L2자매 인터뷰 2024년 6월.

16) 유관지,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교회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p. 96.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 1994년 해산 지하교회 사역자 이○○ 성도가 성경을 북한으로 밀반입하다 발각되어 중국이 바라보이는 해산 측 강둑에서 처형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해산 시내에서 두 명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하였다.

은 소나무 밑에 땅을 파고 보에 싸서 잘 보관해서 감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우리 식구들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1956년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Y 자매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았다.<sup>19)</sup>

그러나 1956년 9월 학교에 입학하면서 할머니가 성경책을 땅에 묻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후로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예배의 자리는 한 번도 갈 수 없게 되었고 Y 자매의 가족은 이미 당국에 낙인이 찍혀 있어서 더 이상 신앙 생활하기가 힘들었기에 이후로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속으로만 간직하며 살았다. Y자매의 가족은 1960년 4월 접경지역 K지역과 인접한 백두산 자락 산골로 추방되었다. 할머니, 고모, 고모부, 고모 시어머니, 삼남매 모두가 양강도로 추방되어 갔다. 북한당국에서는 Y자매 가족을 한통속으로 보았고 성분이 나빠서 쫓아 보낸다고 말했다.<sup>20)</sup>

평양에서 양강도로 추방된 기독교 가정으로 1997년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애란씨의 가정이 있다. 이애란씨의 부친 이용운씨는 평양 창동교회 출신으로 해방 직후 평양의 기독교학생들의 퇴학·자퇴 열풍이 불었을 때 퇴학을 당하여 당시 평양의 성화신학교가 기독교학생들을 위해 만든 특별반에서 공부했다. 전쟁이 끝난 후 평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이용운씨의 가족은 과거의 신앙 행적과 가족들이 월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양강도 삼수군 관동리로 추방 되었고, 이후 해산으로 나와 생활 하던 중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례 이다. 이용운씨의 신앙과 탈북 이야기는 딸인 이애란 박사를 통해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sup>21)</sup>]에 소개 되었다.

## (2) 1990년 이후의 양강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언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기근으로 인한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들 중 중국 공안 당국에 검거되어 복송된 이들이 적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재입북한 이들이 있는데, 그 중 기독교 관련된 증언들이 있다. 필자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북한종교자유백서』에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XX년도에 우리 아들 친구 중에 ○○이라는 똑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애를 키우던 집인데 딸이 엄마가 정신 나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떼어서 책상 밑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서 무서워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집 엄마는 잡혀갔고 딸 혼자 남게 됐습니다.<sup>22)</sup>

단련대에서 기독교 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강도 보천군에 거주하는 여자인데 2007년쯤 탈북했대요. 그 사람은 중국 심양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과 접촉해서 기독교 접한 사람이에요. 그 죄로 재판을 받고 단련형 2년형을 받았어요. 원래는 교화형 2년인데, 교화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2년짜리는 각 군 단련대에서 형기를 하게 하라는 지시에 들어왔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sup>23)</sup>

양강도 보천군에 \*\*이라고 아는 집이 있어요. \*\*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색시가 고발한 거예요. 그 남자는 밀수하는 사람이고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자를 하나 사귀어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그 여자가 달아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기독교 접한 거를 색시가 고발한 거예요. 2008년에요. 북한에서는 기독교라면 100프로 안기부라고 생각해요. 도 보위부 지하 감방에 있다고 들었어요. 짐작하기로는 아마 관리소를 갔을 거예요.<sup>24)</sup>

2009년에 우리 마을에 아는 할머니가 중국에서 과일을 담은 박스에 성경책을 받아 집으로 왔는데, 집에 경비대들이 들어와서 과일을 먹으려고 뒤졌다가 성경책이 나오고, 또 할머니도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에 잡혀서 양강도 해산시 도 보위부에 잡혀서 수용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sup>25)</sup>

이 밖에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기독교인에 대한 처형 사례가 수차례 보도된다. 1994년 해산에서는 장백의 안○○자매와 연관된 북한 내 지하교회



장백에서 바라본 해산 외곽의 산지, 다락밭을 일구어 산림이 황폐화되었다.

19) 김병로 외, 『그루터기』(서울: 박영사, 2020) p. 81-82.

20)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81-82.

21) [역경의 열매] 이애란, “중안착 아버지, 눈물 흘리며 성경 암송에 찬송까지” HYPERLINK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4310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43108 (검색일: 2024. 06. 29)

22) 탈북민, L 자매 인터뷰 2024년 6월

23) 탈북민 김○○, 2012년 3월 면접, 『2012 종교자유백서』162. 재인용.

24) 탈북민 박○○, 2012년 3월 면접, 『2012 종교자유백서』165. 재인용.

25) 탈북민 한○○, 2012년 2월 면접, 『2012 종교자유백서』p.166. 재인용.



사역자 이○○성도가 성경을 북한으로 밀반입하다 발각되어 중국이 바라보이는 해산 측 강둑에서 처형되었고<sup>26)</sup> 1999년 12월에는 해산 시내에서 두 명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하였다.<sup>27)</sup>

### 3. 장백의 교회

#### (1) 장백으로 기독교의 전래

장백은 압록강 북쪽의 강변도시로 중국에 속한 도시이다.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하여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는 단절되었으며 오히려 조선 함경도의 삼수, 갑산과 인접한 도시로 행정상으로는 중국에 속한 조선인의 도시였다. 장백현교회는 1911년 신자 이은경, 조덕수, 오주섭 등이 이주하여 동현 신흥덕촌에서 전도하여 설립했다.<sup>28)</sup> 함경대리회를 거쳐 함경노회, 함북노회를 거쳐 동만노회에 소속되었다.

장백과 그 주변 지역은 청나라 말기에도 조정이 아닌 군벌의 영향하에 있었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혼란기에도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당시 장로회 노회록을 살펴보면 장백을 비롯한 간도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중국 관헌들에 의한 폭력과 갈취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16년 장백교회는 불신자의 모해로 교회와 성도들 가택에 대한 중국관헌의 수색을 당하였으며 성경과 교과서를 압수 소각당하였고, 의복기명을 약탈당하고 수많은 교인이 폭행을 당하여 중상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도 중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냈다고 전한다.<sup>29)</sup> 많은 어려움 중에도 장백교회는 사역을 확장하였는데 1918년 장백현 동평덕교회의 조사 이은경과 이동직의 전도로 진탁(眞沔), 동작동(東作洞), 달나자(達羅子)에 각각 예배처소가 세워졌다.<sup>30)</sup>

3.1운동 당시 장백에서는 압록강 건너의 조선과 동일하게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장백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일제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협조하에 장백과 해산지역 3.1운동의 구심점이었

던 장백교회가 삼수군 주재 경관들에 의해 방화를 당했고 교인들은 포박을 당하여 장백현 중국 경관들에게 압송되어 벌금을 물었다. 예배당이 방화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이은향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이어 갔다.<sup>31)</sup>

1932년 일제가 만주를 병합하여 세운 만주국은 만주지역의 종교 관련 통계를 각 교파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40년 기준 장백에는 1937년에 세워진 감리교회가 있었으며 교회에는 전도인 1인이 있었다.<sup>32)</sup>



장백교회 옛 예배당의 참고

#### (2) 고난의 행군과 장백의 기독교인들

해방 이후 장백교회는 한국교회사의 기록에서 사라진다. 장백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데 1980년대 중반 한족 가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길림성 타지역 출신 조선족 C집사에 의해 조선족 교회가 개척되었다. 개척 후 2-3년새 장백 시내와 외곽의 다수 처소에 5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C집사는 타지역에 호구를 둔 외지인인 관계로 장백지역 거주와 사역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C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당시 장백교회 성도들 중 한총련집사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한총련 집사는 장백현 출신으로 장춘의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집사였다. 한총련 집사가 교회를 담임하며 교회의 성장에는 가속이 붙었고 기존 한족 가정교회도 자연스레 장백 조선족교회에 흡수된다. 한총련 집사는 우한신학교에 학사편입하여 2000년 졸업하고 장백에 돌아와 2005년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한목사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의 배려로 장백교회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2010년에는 52개의 처소, 매 주일 예배에 한족과 조선족을 모두 포함하여 6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장백교회의 부흥은 조선족 교회의 성장 사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 2007년 한국 정부의 조선족 방문취업 확대로 중국 내 대부분 지역의 조선족 사회가 붕괴하며 교인수가 급감하던 시절에도 장백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26) “북한 지하교회 1백개 살아있다,” 『월간 조선』 1996년 5월호 p. 269.

27)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 한 해에 기독교인 400명 처형,” 『월간 조선』 2001년 12월호

28)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상』, p. 396.

29)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 pp. 368, 369.

30)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 pp. 610, 611.

31)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하』, p. 613.

32) 김춘선 외, 『중국조선족사료전집, 철학 종교편 2권』,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인민출판사: 2013) p. 498.



2015년 추수감사예배를 집례하는 한충렬 목사 (사진 출처: 국민일보)

장백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과 깊은 연관을 가졌다. 당시 장백과 혜산의 주민들 간에는 혈연 혹은 이해관계로 엮인 수많은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장백교회 성도들 중에도 대다수가 북한에 친척 혹은 지인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도강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한목사가 가정을 이룬 1995년부터는 북한 주민이 본격적으로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탈북자는 1996

년과 1997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당시 장백에서 잡혀서 북송되는 숫자가 매일 200명이 될 정도였다. 압록강 연변의 수많은 성도들은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한목사는 성도들을 독려했다. 장백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소문을 들은 한국교회와 재미 한인교회들의 기도와 도움이 시작됐고, 한충렬 목사는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충렬 목사의 동역자 장문석 집사가 2014년 북한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고 한충렬 목사는 2016년 4월 3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sup>33)</sup> 한충렬 목사는 북한에서 넘어온 월경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죽음의 내막은 현재까지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 나가며

현재의 양강도 지역은 과거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일부에 속했던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개마고원 내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산간오지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다.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서울을 벗어나 조선 팔도 각 지방과 만주와 간도의 조선인 집거 지역까지 진출하여 선교의 교두보를 세웠으나, 양강도와 제주도까지 진출하여 정착한 선교사는 없다. 그러나 장로교는 성진(현재의 김책)에 선교 센터를 두고 함경남도 북부에 대한 방문 전도를 벌였고, 조선인 전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개마고원 산간 오지를 누볐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전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혜산을 비롯하여 삼수, 갑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들이 다수 설립되었다. 폐쇄적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특성상 교회의 큰 성장은 없었지만 교회는 유지되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갑산읍 교회의 이재연 목사는 3.1운동 직후 시국 사범으로

교회를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일제의 탄압과 뒤이은 공산화로 인하여 한국교회사에서 이름을 감추게 된 양강도의 교회는 1990년대 후반 탈북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1950-60년대 북한에서 있었던 성분조사와 대규모 숙청으로 인해 양강도 주변 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의 소식이 탈북자를 통해 적게나마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과 맞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자와 월경자가 발생하였고, 이 시기 혜산의 맞은편 장백에서 부흥하기 시작한 장백교회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는 척박한 곳에서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유지되어 온 땅, 그루터기 신자들이 추방되어 신앙을 감추고 생존한 땅,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땅인 혜산과 그 주변 양강도의 도시들을 기억하며 그 곳의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33) 장백교회 출신 성도 J자매 인터뷰 (2024. 5)



# 양강도 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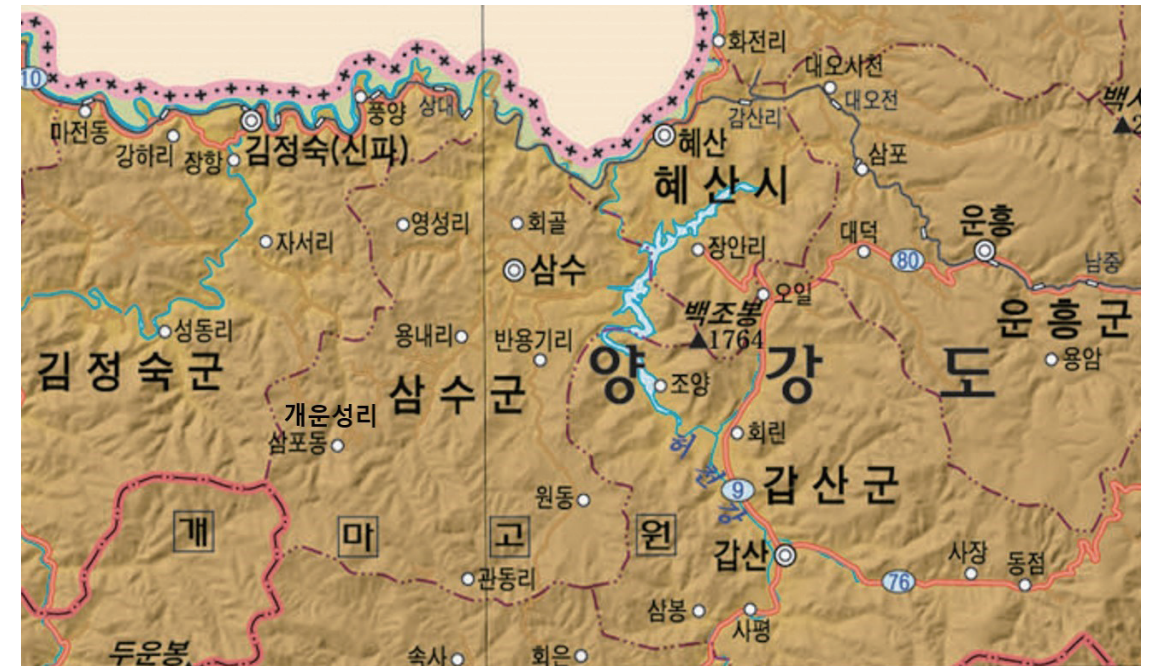
이한복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북한의 양강도(兩江道)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낭림산맥 북쪽으로는 마천령산맥 동으로는 함경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해발 2,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겨울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양강도가 김일성 주석의 일가와 연관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혜산시와 김형직군, 김정숙 등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양강도’라는 지명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이 흐르는 곳에서 유래되었고 도청소재지는 혜산시이다. 현재의 양강도는 1954년 10월 30일 함경남도 혜산시, 운흥군, 보천군, 삼수군, 신파군, 갑산군, 풍산군, 풍서군, 부전군과 함경북도 삼사군과 자강도의 후창군 등을 통합하여 양강도를 신설하였다. 1981년 8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가족 이름을 따서 ‘신파군’을 ‘김정숙(아내)군’으로, 1988년 8월에는 ‘후창군’을 ‘김형직(아버지)군’으로, 1990년 8월에는 ‘풍산군’을 ‘김형권(작은아버지)군’으로 개칭하였다.

양강도는 ‘혜산시’와 ‘삼지연시’ 두 개의 시와 10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기준 72만여 명이다. 양강도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지역으로 연평균기온 2.1℃이고 1월 평균 기온 -18.5℃ 내외로 매우 춥고 연평균강수량이 650m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농업생산에도 불리한 조건이다.

성결교회의 북한지역에서의 전도활동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비해 20여 년 이상 뒤늦은 1908년 ‘진남포복음전도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 5월에 조선에 처음으로 세워진 ‘염곡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의 ‘설립 1주년 기념’교회였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난 1909년에 조선의 세 번째로 설립한 교회가 ‘송도(개성)복음전도관’이었다. 이 같은 일은 초기성결교회가 북한지역 전도활동에 적극적



양강도에 설립된 두 곳의 성결교회

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초기 성결교회의 교역자들 가운데 용강군·북청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 출신들이 많았다. 성결교회 초석을 놓은 최초의 지도자 세 사람, 정빈(황해도 해주)·김상준(평안남도 용강군)·이장하(평안북도 의주) 이들 모두가 북한지역 출신이었다.

북한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전도활동은 1922년 4월 객재근과 신관빈 두 전도사를 파송하여 북청성결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성결교회는 북한지역 주요 도시들과 신(新) 발전지역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썼다. 일제강점기 북한지역에 설립된 성결교회는 함경북도에 17개, 함경남도에 34개, 평안북도에 10개, 평안남도에 12개, 황해도에 12개, 강원도에 3개, 경기도에 3개 등 모두 91개소이다.

양강도 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로는 1928년에 설립된 개운성성결교회와 1931년에 설립된 혜산진교회가 있다.

## 개운성성결교회(開雲成聖潔教會)

개운성성결교회(함경남도 삼수군 관흥면 개운성리 6통 8호)는 북청성결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생활을 하던 전정섭(全正燮) 성도가 ‘개운성리’로 이사하여 그곳

에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수십 명의 구도자가 일어남에 따라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배드릴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북청성결교회는 20여 원을 들여 예배당으로 사용할 가옥을 매수하여 1928년 북청성결교회의 지교회로 개운성성결교회를 설립하였다.

‘힘든 일이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라는 말에 나오는 ‘삼수갑산’은 함경남도 서북쪽에 있는 ‘삼수군’과 ‘갑산군’을 뜻하는 말이다. 삼수군과 갑산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역이고 겨울에는 살인적인 추위와 함께 교통망도 거의 없는 고립된 지역으로 사람 살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의 대명사로 마치 ‘죽음이나 지옥’에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개운성결교회는 바로 ‘삼수갑산’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개운성리’는 개마고원의 중앙지역에 놓인 작은 마을인데 마을 이름은 ‘구름이 성의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를 개척하여 생긴 마을’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교회설립 초기에는 ‘갑산교회’라고 불리었다.

전정섭 성도는 1928년에 열린 ‘함남지방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전도활동과 개운성성결교회의 예배상황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들은 함남지방회는 북청의 어포리교회 집사이며 함남지방회 전도부장인 맹성국 집사를 시찰위원으로 선정하여 개운성교회를 방문하여 실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맹성국 집사가 개인 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를 대신하여 북청성결교회의 이문현 전도사와 니망지리성결교회의 김형식 전도사를 대신 시찰원으로 파송하여 개운성교회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두 전도사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어지는 4, 5백 리의 험로를 자전거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3일 만에 개운성성결교회에 도착하였다. 그곳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대대적으로 시찰원인 두 명의 전도사를 환영해 주었다.

개운성성결교회의 상황은 믿음의 용사인 전정섭 성도의 신실한 신앙과 열렬한 기도와 뜨거운 사랑 가운데 전도하여 일곱 가정을 주께 인도하여 유년까지 40여 명이 회집하고 있었고 예배당은 150여 명을 수용할 만한 4간의 초가 1동이었다.

개운성리지역은 외부와의 접근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으로 금전 유통이 불편한 관계로 주일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찰원들은 주일예배 때마다 당지 소산물이며 주식인 감자를 주께 바쳐서 방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회의 간판(看板)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산간벽지(山間僻地)이므로 시찰원의 주선으로 예배당 문 앞에 ‘예수교동양선교회 개운성성결교회’라는 간판을 대서특자(大書特字)로 써서 붙였다. 당시 8월 하순이었음에도 시찰원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신자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함남지방회에 보고하였다.

이후 1929년 3월 갑산교회(개운성교회)는 북청성결교회의 순회지가 되었다. 또한 교회주무인 전정섭 성도는 병자를 위해 다른 신자들과 합심하여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이성수 씨의 미친병과 이신수 씨의 반신불수병과 이춘섭 씨의 체증과 오변선 부인의 마귀병과 진성중, 이임바우, 이응선, 한이근, 이맹춘 씨의 사귀병이 완쾌되어 교인들 모두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다.

개운성성결교회는 교회 치리의 편의를 위해 1931년부터 교회에서 가까운 해산진교회의 순회지로 바뀌게 되었다. 1931년 5월 15일~20일까지 김형식 전도사의 인도하에 부흥회를 열고 신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중 중생자 5인, 성결자 2인, 십일조 작성한 가정 3가정을 얻었다. 11월에 신북청성결교회에서 열린 ‘제9회 함북지방회’에서 김진문 전도사는 개운성교회에 대해 ‘신자 25인, 전정섭, 조학룡, 전홍식 성도는 십일조를 드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33년 개운성교회는 설립된 지 4, 5년이 되었으나 담임교역자가 없이 신자들이 열성으로 인도하던 중 11월 23일~27일까지 김형식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한 결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9인이나 되었고 또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69세 된 이미성이라는 부인은 사귀병으로 3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완전히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34년 10월 20일 주일에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그곳 토산품인 감자 20여 석과 수확한 농작물을 헌금으로 바쳤는데 시가로 40여 원이나 되었고 종각도 세워 예배시간마다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12월 8일~5일간 유봉운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한 결과 신자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운성성결교회는 복음전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1940년에 폐지되었다.

## 해산진성결교회(惠山鎭聖潔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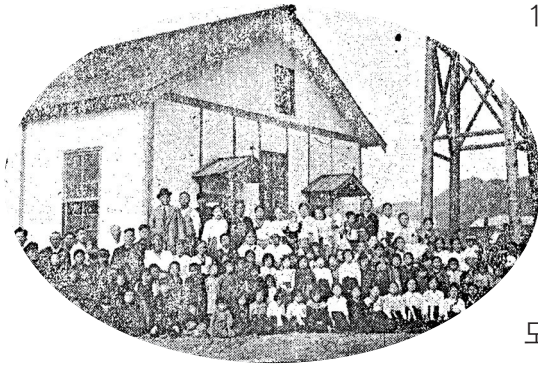
해산진성결교회(함경남도 갑산군 해산읍 해산리 551)는 1931년 초부터 김형식(金亨式) 전도사를 파송하여 전도활동을 하던 가운데 ‘신정 2정목 551번지’의 가옥 6칸을 임시에배당으로 정하고 5월 3일(주일) 오전 10시~11시 30분까지 유년주일학교 남녀 34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복음을 들은 어린이들은 “다음 주일에는 부모까지 인도하겠다.”는 아름다운 작정을 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다.

1932년 1월 27일부터 5일간 열린 ‘소아부흥회’에서는 성령의 크신 역사로 90여 명의 아동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였다. 또한 6년 동안이나 사귀병으로 고통받아 오던, 교회에서 50리나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던 사귀병자가 4월 20일에 교회로 찾아와 예수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23일~26일까지 주께 간구한 결과 신



유의 영광이 나타나 온전한 사람이 됨으로 그 남편까지 믿기로 작정하였다. 12월 6일~12일까지 김형식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중생자 11인, 성결자 4인, 십일조 작정자 1인, 무기 기도자 7인, 매주일 1인 이상 전도하기로 작정한 자가 15인이거나 되었다.

1934년 1월 28일에 김형식 전도사가 평산교회로 이동하고 후임으로 유봉운(俞奉云)전도사가 2월 10일에 부임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2월 12일~18일까지 1주일 동안 사경회를 열어 모든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유봉운 전도사가 지방회 결의로 3월 13일에 온성교회로 전임된 후로 1년여 간 교역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36년에 건축한 해산진교회와 교우 일동


1935년 이정원 순회목사의 인도로 4일간 특별집회를 한 결과 큰 은혜를 받고 남자 2명, 여자 5명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고 남녀집사 4명을 세워 교회를 이끌게 하였다. 하지만 교회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음으로 순회목사는 “해산진교회를 폐지하고 교회 기물은 방매하여 지방회장에게로 보내고 교인들은 장로교회에 부치라”고 결정하였으나 김유병(金裕丙)성도와 한회록(韓會綠)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택한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근근이 교회를 운영하던 중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심으로 1936년 2월에 회령에서 개최된 ‘북부지방회’에서 전기찬(全基瓚) 전도사가 담임교역자로 임명을 받아 2월 15일에 해산진교회에 부임하였다. 전기찬 전도사의 인도로 2월 24일~3월 1일까지 1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결심자 6인과 건축헌금 210원이 주께 바쳐졌다. 전기찬 전도사는 용기를 내어 5월 11일에 경성과 충청남·북도와 안동지역의 각 교회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사랑의 헌금을 받아 가지고 6월 18일에 교회에 도착하였다. 곧바로 믿음으로 27평의 예배당건축을 시작하여 준공하였는데 총공사비는 556원이 들었다.

1936년 12월 23일~27일까지 5일간 강송수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매일 3회씩 집회하였는데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결과에 통회자복하는 자가 많았으며 성결자 1인, 중생자 6인, 새로 힘을 얻은 자 28인, 새로 주일 지키기로 결심한 자 11인, 십일조 바치기로 작정한 자 3인, 매일 성경읽기로 작정한 자 15인, 매일 전도하기로 결심한 자 5인,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 27인, 가정에 배 드리기로 작정한 자 7인, 신 결심자 30여 명을 얻어 주께 영광을 드렸으며 특히 3인의 입회식, 5인의 학습예식, 6명의 유아헌아식 등의 거룩한 예식까지 행하였다. 27일 오후 1시에는 여러 장로교회 교역자와 교인들과 미 신자들까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영광의 헌당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1938년 3월 22일부터 김영범 목사의 인도로 부흥집회를 한 결과에 큰 은혜가 내려 결심자 23명과 통회자복하는 자가 많았으며 교역자 주택건축을 위해 200여 원을 헌금하였다. 26일에는 3인의 세례식, 8인의 입회식, 10인의 학습예식이 있었으며 27일에는 전기찬 목사의 취임식이 있어 주께 큰 영광 돌렸다.

1939년 해산진교회에서는 안복근 자매가 개안(開觀)되는 신유의 은혜가 있었다. 부인회에서는 80원을 들여 풍금 1좌를 매입하였고 남전도회에서는 자전거 1대를 구입하여 교역자에게 드려 전도하게 하였다. 또한 500여 원으로 남녀 교역자 주택을 건축하고 440여 원으로 예배당을 증축하였다. 김유병 집사는 신앙생활 10주년을 기념하여 4, 50원을 들여 예배당 전체에 페인트를 칠하였다. 해산진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해산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p>             趙 朴 崔 金 張 金 金 宋 柳 韓 韓 金 全 李 全 金              崔 得 雲 錦 在 明 永 聖 應 星 月 裕 泰 良 職 正 基              益 善 陽 善 龍 德 浩 吉 翰 茂 珥 珥 丙 顯 燮 燮 瓚              時 世 韓 安 景 以 金 朴 李 盧 黃 金 金 崔 吳 全 全 韓              이 덕 중 복 치 男 朋 攝 得 應 鎭 永 啓 鳳 明 泰 應 錫              화 원 목 금 국 省 鍾 華 煥 熙 燦 淳 雲 河 浩 遠 遠 浩              김 조 조 장 김 박 민 정 선 김 리 양 리 방 한 박 황 박              이 금 나 일 상 해 금 순 김 동 김 유 복 리 마 황 제 하 두 소              순 석 월 순 자 근 성 자 순 너 김 동 철 너 아 수 선 전 속 사              권 리 덕 희 권 조 조 한 희 성 김 희 권 김 송 주 조 권              탁 순 봉 금 한 금 금 송 원 동 순 언 임 송 형 순 봉 송              권 유 너 철 석 석 선 복 순 실 자 유 권 만 선 덕 훈 금              유 재 안 김 전 이 송 전              복 복 정 수 정 순 형 국              송 순 유 덕 금 유 윤 전           </p>	<p>             惠山鎮聖潔教會 (無願)           </p>
--	---

1940년 해산진성결교회 교인명부


## 혜산과 양강도의 음식

### 농마국수

감자농마국수는 양강도와 함경도의 특산품인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국수이자 함경도 향토 음식이다. 일명 ‘빨치산국수’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유격대가 항일 무장투쟁을 하면서 먹었다고 전해지는 데서 유래한다. 농마국수는 잔치음식이기도 하다. 남한에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청춘남녀에게 “언제 국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국수는 주로 잔치국수를 의미한다. 양강도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때의 국수는 농마국수를 의미한다. 농마국수는 약간 쓰면서 뽀은맛과 신맛이 같이 나고, 식감은 질기면서 와그적 와그작와그작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면발의 밀도가 높다. 만드는 법은 감자 전분을 채에 쳐서 무거리를 갈라내고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하여 국수틀로 면을 뽑는다. 고명으로 고기를 오이, 무김치와 함께 썰어 올려 양념장을 놓고 비벼 먹기도 하지만 깻국에 말아먹기도 한다.



### 백두산 들쭉술

백두산 들쭉술은 백두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무궁해 들쭉을 이용해 만든다. “들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고구려 장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적자색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들에서 나는 죽’ 들쭉이라 불렸다고 한다. 들쭉의 모양과 맛은 남한에서 접하는 블루베리와 유사하다. 백두산의 북쪽 중국지역에도 대규모 들쭉밭이 조성되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들쭉은 백두산 블루베리(長白山藍莓)라는 상표로 중국 전역에 팔려 나간다. 들쭉술은 육당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에도 등장하는데, 최남선과 그 일행은 백두산을 관광하며 “풍산에 이르러 들쭉술을 실컷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한다. 들쭉술은 1961년부터 ‘혜산 들쭉가공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의 교류 시 가장 많이 하는 선물 중 하나이다. 



## 량강도 아이들

이 영화는 남한의 한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 풍선으로 선물을 띄워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선물을 실은 풍선은 바람을 타고 백두산 아래에 위치한 삼지연군까지 날아간다.

한편 북한의 삼지연에는 또 다른 해맑은 어린이들이 있었다. 보천소학교 4학년의 종수는 홀어머니, 병든 동생과 함께 힘든 상황에서도 해맑게 살아가는 소년이다. 종수는 친구 꽃분, 만세와 늘 함께 어울려 산과 들을 뛰논다. 이들이 다니는 삼지연 보천인민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평양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학교는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에게 파철 수집의 임무를 부여한다. 평양에 갈 꿈에 부푼 종수는 파철을 얻으려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심지어 어머니가 숨겨둔 예물 시계까지 파철과 바꿔 학교에 갖다 바친다. 여기에 꽃분이의 도움이 더하여 종수는 겨우 할당량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수학여행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만세와 꽃분 그리고 종수는 여행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만세가 과거 꽃제비 아이들과 어울렸다는 죄목으로, 꽃분이는 키가 작아서 평양을 다니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종수는 장애아같이 보인다는 이유로 평양에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망한 종수는 혼자서라도 평양에 가기 위해 무모한 여정을 시작하지만, 산길을 방황하다 숲속에서 잠이 든다. 잠에서 깬 종수 앞에 남한의 어린이 풍선으로 날려



제목: 량강도 아이들  
감독: 김성훈, 정성산  
출연: 김환영, 주혜리, 신민규 외  
개봉: 2011



# 혜산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분 소개해 주시지요!

A: 저는 혜산 옆에 산골에서 나고 자라서 2005년에 혜산 시내로 나와서 살았고,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 혜산에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B: 저도 어려서는 혜산 주변지역 시골에서 살았고요. 1980년대 초중반에 대학 입학하면서 혜산 시내로 이사 와서 30년간 혜산 시내에 살았습니다.

혜산이 원래는 갑산군에 속했었잖아요? 남쪽에는 “삼수갑산”이라고 하면 아주 찼찼산중 이미지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떤

가요?

A: 북한에서도 “삼수갑산”이라고 하죠. 평안도나 황해도분들은 양강도를 지칭할 때 대체로 삼수갑산이라고 지칭해요. 삼수갑산은 이조시대에 정배살이하던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약간 비하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B: 김일성도 그랬대요. 간부들 놓고 “나중에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라” 그 때 양강도당 책임 비서가 뜨끔했대요.

혜산을 지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B: 동마다 이름이 있는데, 대략 나누자면 위원지구, 송봉지구, 혜산지구, 춘동지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요.

혜산에서 위원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A: 혜산 끝부터 위원 초입까지는 10리쯤 돼요. 4km쯤 되겠네요. 걸어서 한 시간쯤 걸려요. 버스도 타긴 하고요.


B: 시내에서 시내까지는 6km 정도 되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걸어 다니죠. 한 시간쯤 걸려요. 지금 다니는 차는 써비차(사설 영업차)인데, 80년대 초까지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위원까지는 다녔어요.



혜산의 지역 구분,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떨어지고 그 선물 꾸러미에는 멜로디카드와 산타 옷 그리고 무선 조종 로봇이 들어 있었다. 무선 조종 로봇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아이들은 로봇을 구경하기 위해 기름, 쌀, 누룽지 등을 종수에게 바친다.

학교에는 성분 좋은 집안, 부잣집 아이들이 주류가 되는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보위지도원의 아들 도식이 있었다. 어린이들 사이에는 도식의 집에 있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우량종 선물닭’이 가장 큰 명물이었고 도식은 선물닭이 낳은 왕달걀을 친한 아이들에게만 맛보게 해주었다. 도식 무리의 기세에 눌러 살아 가던 종수와 친구들은 풍선을 타고 날아온 변신로봇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소위 ‘인싸’가 된 것이다. 남쪽에서 넘어온 무선 조종 로봇이 아이들 간 질서의 역전을 가져온 상황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우정 그리고 로봇을 뽐내고, 질투하는 아이들 간의 에피소드로 영화는 가득 차 있다. 영화를 보는 이들은 산과 들을 다니며 뛰노는 티 없는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과 동시에 북한의 민낯을 보게 된다. 이 영화는 식량 사정, 연료 사정, 의료 사정으로부터 파철 수집 요구로 인한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잠시 등장하는 시장과 화교 상인의 모습까지 북한 사회의 실체를 다각도에서 비추고 있다.

한국의 기준에서 보자면 너무도 단조로운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이지만 양강도 산골의 어린이들도 그들만의 사회가 있고 울고, 웃고, 놀고, 다투는 삶이 있다. 차별과 극빈, 교육의 붕괴와 기본생활 수단의 결핍은 성장기 북한 어린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지만 어린이들의 해맑은 에너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 낸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것이다. 영화 속 남쪽에서 풍선으로 보낸 성탄 선물이 양강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활력소가 되었다. 지금은 남북의 교류가 막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의 여러 지원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남한 어른들의 진심이 영화에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닿게 되기를 기도하며, 언젠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자전거로는 얼마나 걸리죠?

A: 자전거로는 더 빨리 걸리는데, 여자들은 자전거 못 타잖아요. 2019년부터는 여자도 탈 수 있게 됐죠. 위연 가는 길에, 철길을 다 뜯어놓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협궤를 표준궤로 바꾸는 공사예요.

### 예전에 협궤였으면 다른 열차들은 호환이 안 되었겠네요!

A: 그렇죠. 이전에는 지선으로 연결이 돼서 삼지연만 겨우 왔다갔다 할 수 있었어요. 이제 표준궤로 바꾸고 무산으로 연결해서 함경북도로 바로 나가게 되겠죠. 지금은 레일을 다 뜯어서 삼지연까지 기차로 못 갈 거예요.



2016년 홍수로 유실된 철도를 수리중인 모습 (사진 출처: 데일리NK)

### 해산에서 평양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A: 급행열차는 원래 18~20시간 걸려야 하는데,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틀 걸리고 사흘 걸리고 하죠. 이제는 버스로도 많이 다녀요.

### 버스는 어디를 거쳐서 평양까지 가죠?

A: 함경북도로 해서 함흥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내려가서 평양으로 가죠! 버스로 가면 이틀이면 평양까지 가요. 중간에 함흥까지 가서 하루 자죠. 버스 요금은 코로나 이전에 해산에서 함흥까

지 100원쯤 됐어요.



해산 시내에 주차해 있는 평양-해산 사설 시외버스, 일명 싸비차 (사진: 아리랑데이 유튜브 화면 캡처)

### 해산 안에서 지역들 간에 생활 격차가 있나요?

A: 해산 시내에는 해강동, 해장동, 해탄동이 노른자위 땅이고요, 강 쪽 사람들이 잘 살죠. 위연, 충동 쪽은 해산보다 못하죠. 송봉 쪽은 더 어렵고요. 다른 지역은 옛날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해산 시내의 고난의 행군 지나고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해산 시내 아파트는 평양이랑 비슷하



해산 시내 중심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사진 출처: 통일뉴스)

대요. 비싼 아파트는 한 채 값이 중국돈 20만 원이 넘어요. 해산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위연에 있는 연풍동, 송봉동 쪽 사람이 많고 시내 쪽 사람이 적은 게 시내 쪽 사람들은 잘사니까 안 오는 거죠.

### 갑자기 생활 수준에 격차가 생긴 이유가 뭐죠?

A: 해산에는 세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정되게 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해산 시내에서 하죠. 해산 시내에 돈 버는 사람들은 환전도 하고 유통도 하고 여러 산업을 동시에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해산 시내에 있으니까 해산에 돈이 많죠. 위연쪽 사람들은 작게 밀수하고, 송봉같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밀수는 못하고 뒤에서 짐을 나르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무튼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죠.

### 해산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뭐가 있을까요?

A: 랜드마크는 보천보 기념탑이 제일 유명하죠. 보천보 기념탑은 양강도에서 중요한 건축물 일거예요. 2015년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만들었어요. 그 앞에 김정숙 예술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도당이 있죠. 해산 시내쪽에 양순백화점도 있죠. 예전에 도당 간부들이 도당 앞에 살았는데 이제 다 양순백화점 있는 동네로 이사했어요.

B: 보천보 기념탑 앞에 해산면옥이 있어요. 해산에서는 제일 좋은 음식점이에요. 기본 메뉴는 국수예요. 예전에 80년대까지는 국수 팔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 학생들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인가? 개인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보천보기념탑은 해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메뉴도 많아지고 비싸졌죠. 그때부터는 상류층이 다니는 식당이 돼버렸어요. 김정숙 예술극장은 해산 예술극장이었는데, 이름을 김정숙 예술극장이라고 만든다고 했는데,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해산 자체가 낙후하기도 하고 극장이 김정숙 이름 붙일 정도는 못 된다고 해서 해산예술극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김정숙예술극장이라고 바뀌었군요!

### 해산 시내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이나 여가 공간이 있나요?

B: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주변에 볼만한 물가도 없고, 산도 없고요.

A: 맞아요. 해산은 정말 귀양살이 오는 데가 맞





해산 시내에 위치한 패궁정은 조선 후기 해산진성 남문의 문루였다

는 게 다른 도시처럼 볼 데가 없어요. 패궁정이라고 그럴듯한 정자가 있는데, 보천보 기념탑 뒤쪽에 있어서 어떻게 거기서 놀겠어요. 성스러운 탑 뒤에서 놀다가 문제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명천 바닷가, 칠보산으로 놀러 가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강도 사람의 이미지나 해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나요?**

B: 양강도 사람들은 ‘혈치 않다, 세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군대에 나가 보면 안대요. 군대에 가면 여러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처음에는 함북도 아이들이 센데, 점점 지나면 양강도 아이들이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황해도, 개성, 평양 아이들은 제일 뒤통지죠. 양강도 아이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강인하죠. 어려서부터 국가적인 배려가 없이 자라잖아요.

A: 솔직하고 뒤통 없다는 이미지도 있어요. 예전에는 양강도 사람들이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도 많고 위축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잘사는 사람도 많고 중국이랑 연결된 사람도 많고 오히려 실력있고 돈보이는 사람들도 해산에서 많이 나와요.

해산이 백두산도 가깝고, 보천보도 가깝고 주변에 혁명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령의 혁명 전통이 하늘 땅에 넘친다.” 그런 표어도 있던데, 양강도 사람들은 혁명의 고장 사람들로서 자부심이 있나요?

B: 70년대 얘기죠. 70년대에 초등학생들은 ‘장군님이 이 땅을 밟고 지나셨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죠.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면 ‘이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는 세뇌 교육을 할 텐데 지금은 부모들이 국가에 반감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 세뇌가 안 먹히죠.

A: 중앙당 간부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중앙당 정책이 가다가 못 가는 곳이 양강도”래요. 양강도 사람들 자체가 추방되거나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양강도의 행정구역 (그림 출처: 건설교통저널)

**해산 주민들 중 원래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추방당해서 해산으로 온 사람들이 많나요?**

A: 평양에서 바로 해산 시내로 추방 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50-60년대에 평양에서 양강도 백암, 운흥, 삼수, 갑산으로 추방돼 온 사람들 2세 3세들이 해산으로 나와서 사는 사

람들이 많을 거예요. 추방당한 사람들 자녀들은 다 트라우마나 정권에 원한이 있죠.

**그렇다면 해산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추방 가족 배경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A: 그건 알기 어려워요. 자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죠. 저희도 추방된 가정이었는데 해산 시내에 나와서는 주변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아주 가까워진 사람한테는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추방돼 온 집인 거예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열 사람이라고 하면 두세 사람은 추방되어 온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추방되어 온 사람들끼리 가까워지죠.

**해산 사람들의 직업이 궁금합니다. 해산의 직업적 특성이 있을까요?**

B: 시내 사람들 중에는 80%는 어떻게든 밀수랑 연관돼서 살 거예요. 그런데 밀수가 멈추면 사람들 살기 힘들죠. 가끔 ‘국가가 긴장한 상태가 된다’ 하면 한 달씩 밀수가 멈춰요. 김정일 죽었을 때도 한동안 멈춰서 경제가 엄청 힘들어졌죠.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해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A: 밀수와 무역이 많다 보니까 세관 관련된 직종, 검사라든가 경찰같이 한국으로 치면 법무부 연관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해산도 북한에서는 큰 도시인데 다른 도시 중에 가깝게 느끼는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A: 해산과 가까운 도시 중에는 청진, 함흥이 큰 도시인데 둘 중에서는 청진이 더 크니까 청진이랑

가깝게 느껴지죠. 자강도는 군수공장들이 있으니까 방문하려면 승인번호도 필요하고, 또 자강도는 김정일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자강도가 국경인데 탈북자가 적은 게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B: 신파(김정숙), 후창(김형직) 사람들은 강계를 더 가깝게 느낄 걸요. 그쪽은 원래 평안북도였잖아요. 강계도 내륙선이라는 철도로 해산과 연결돼있어요. 북한은 지역감정 같은 게 남한처럼 크게 있지는 않아요. 어물, 과일장사 하는 사람은 함경도 쪽이랑 가깝고, 금속, 동물가죽 장사하는 사람이나 옥수수 파는 사람들은 강계 쪽으로 가깝죠. 옥수수가 강계 쪽에서 많이 나와요. 양강도 말투는 원래 함경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양강도에서도 후창(김형직)은 자강도말 써요.

**해산 사람들은 압록강 건너 장백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겠네요.**

B: 장백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불빛도 찬란하고 잘 먹고 잘사는 거 같고요. 70년대에는 장백 쪽 애들은 거지같다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옷도 공급받고 잘 입는데 장백 아이들은 열악했거든요. 장백 애들이 명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장백과 해산이 가깝지만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해요.



장백에서 바라본 위연동 사진(사진 출처: RFA)

A: 장백을 보면 밤 열한 시에도 불빛이 환하잖아요. 부러운 마음이 들죠. 장백 사람들이랑 친척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지만, 밀수로 연결된 사람이 더 많죠. 한 사람이 밀수를 하면 그 사람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다리 건너면 장백에

아는 사람이 다 있죠. “밀수”라는 말이 남한 사회에서는 범죄인데, 사실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물물교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쪽에 없는 게 강 건너에 있으면 내가 가진 거랑 바꾸는 거죠. 밀수를 해도 90년대 말까지는 중국 사람이 북한으로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이 위험하게 북한을 다닐 필요가 없죠. 북한 사람들이 넘어 다니니까요.

해산 사람 중에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산에 계실 때 남한행 탈북민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B: 저는 연선 쪽에 살지 않아서 잘 못들어 봤어요. 오히려 “누구네 한국에 갔다더라”는 소문이나도 ‘설마 한국어를 갔겠나? 소문이 그렇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연관된



해산 출신 탈북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진: 해산씨스터즈 채널 캡처)



사람 중에서 누가 한국에 갔다고 조사를 나왔거든요. 조사 받을 때 안전원 얘기를 들으니까 개가 한국에 간 거를 알았죠. 가족들도 쉬쉬하고 잘 알려지지 않죠.

A: 탈북 많이 하는 동네는 좀 달라요. 어느 집에 누가 없어졌는데 “한국 갔나 보디”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남한에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남한에 있는 가족 통해서 소식 듣죠. 위연 지역에 연풍동이 있는데, 남한에 연풍동에서 온 사람들 모임이 있을 정도예요. 열 집 중에 한 집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탈북민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B: 해산이라고 한국에 다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는 동네가 있어요. 위연 사람들은 많이 갔는데 별로 안 간 동네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가 죽었나 보디’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집 엄마가 먹는 것도 잘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집 아이가 한국 간 걸 눈치챘죠. 그래도 당사자는 한국 갔다는 얘기 안 하죠. 묻지도 않고요.

A: 남한에서 오는 돈이 여러 사람을 살려요. 돈 받는 당사자는 당연하고, 뒷배가 되어주는 법관들도 있고, 돈 전달하는 브로커들도 있고요. 남한에서 온 돈을 쓰니까 해산에 돈이 잘 도는 거죠.

해산에 계실 때 남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접하셨나요?

B: “사랑의 미로”, “그때 그사람” 그런 노래 들었죠. 80-90년대에는 그런 노래를 연변가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변 조선족들 노래도 잘 만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한 와서 보니까 그 노래들이 다 한국노래더라고요. 80년대 말부터 조금씩 들었고 90년대 들어서 점점 많아지고, 2000년대에는 거의 퍼졌죠. 연선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고 들었어요. 내륙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은 다 남한문화 접해 봤죠.

A: 처음에 CD알판 같은 건 중국에서 들어왔죠. 2000년도 전후로 “장군의 아들” 영화가 들어오고, 2004년 인가 “천국의 계단”을 많이 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USB로 바뀌더니 중국 쪽이 아니라 평양 쪽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죠. 한류 문화가 양강도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통제도 별로 없었



북한에는 남한의 대중문화가 광범위하게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은 작년년부터 시행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통해 한류 문화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 출처: KTV 화면 캡처)

어요. 2005년 전후로 통제가 엄청 심해졌는데 그래도 다 봐요. 걸려도 단속반에 돈 내면 문제될 게 없죠. 노래는 얼마, 드라마는 얼마, 남한으로 치면 과태료 정해진 것처럼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탈북할 때 만난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십계”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탈북할 때 동남아에서 선교사님 댁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말 십계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남한 소식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 소식을 많이 안다면 어느 정도 많이 알죠?

A: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외부 소식 듣고, 가족이 남쪽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정남 죽였을 때 해산 사람들 중에는 그 소식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남쪽에 가족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민감한 얘기도 조심히 하거든요. “김정은이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형 독살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마약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해산-장백으로 들어오는 마약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북한에 마약이 많이 퍼졌나요?



농마국수는 함경도 북부와 양강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사진 출처: SPN뉴스)

A: 해산에 마약은 2010년쯤부터 확 퍼졌어요. 보통 얼음, 빙두라고 부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코카인 한다는 소문은



있었어요. 마약 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옆에서 보면 중독된 티가 나죠. 저는 해산 성인 10% 이상은 중독됐다고 봐요. 해산 사람들은 마약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마약은 다 함흥에서 와요. 품질 좋은 것들은 중국, 러시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B: 연선에서는 마약 유통하면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자기가 팔면서 자기도 해보고 중독되는 거죠. 밀수하는 사람들이 마약도 해요.

**해산과 양강도를 대표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A: 농마국수가 유명해요. 집에서 결혼식이나 대소사 있으면 농마국수를 기본으로 먹죠. 두부밥도 맛있고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는 인조고기밥 먹기 시작했어요. 감자떡도 먹고요.

B: 들쭉 단묵도 있어요. 한국말로로는 젤리라고 하죠. 해산에 들쭉 가공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단묵이 나와요. 그리고 감자 음식, 언감자떡, 막갈이떡, 언감자국수 같은 거 먹죠. 들쭉이 블루베리 비슷하고 들쭉술도 포도주 비슷해요. 신파, 후창같이 자강도 가까운 쪽에는 강냉이묵을 만들어 먹는데 자강도에는 강냉이가 많이 나니까. 강냉이 음식이 많아요.



백두산 들쭉, 블루베리와 비슷하며 들쭉단묵, 들쭉술의 원료가 된다.(사진 출처: 데일리 NK)

**장백에서 보면 압록강 상류부터 뗏목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요?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라서 나무를 못 베는 걸로 아는데 그 나무들은 어디서 오는 거죠?**

A: 백암에서 와요. 백암 임업이 유명해서 백암 나무가 길주 쪽으로 나가서 펄프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고 압록강 쪽으로 내려오는 건 무역으로 나가요.

**해산에 시장들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B: 80년대 초반에 농산물시장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게 점점 커져서 시장이 됐죠.

**80년대 초에도 국가에서 시장을 허락했나요?**

B: 네 국가에서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중에 당원이 되려고 하거나 간부가 되려고 하면 그런데 못 나가죠. 어떤 집은 아들이 당원이 되려고 “엄마가 장사해서 내가 당원 어떻게 되나, 당장 관 뒤라” 라고 해서 장사 관뒀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 이전에도 해산물 같은 거 바꿔서 장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북한에도 장사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산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여인 (사진 출처: 아시아 프레스)

A: 해산시장 커지면서 그 주변 집값도 엄청 올랐어요. 주변의 집들이 창고 기능도 하고 도매도 주변 집들에서 해요. 양순백화점은 시장은 아닌데 유명한 상업시설이죠. 중국 사람이랑 합영으로 운영하고. 중국 물건들만 팔죠. 장마당에도 중국 물건을 팔기는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고급지고 비싼 물건들을 팔아요. 중국산 명품 느낌이죠. 식당도 양순백화점 안에 고급 식당들이 있어요. 해산에도 돈 없는 사람들은 양순백화점 못 가 봤을 거예요. 주변 도시에서도 부자들은 양순백화점 다니죠.

**북한에 계실 때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B: 안 좋게 교육받았죠. 허황되고 헛되다고 배우죠. 주변에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70년대에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온 어떤 할머니가 특이한 분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아주 깔끔하고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 할머니가 수예로 그림을 만들었는데 푸른 풀밭에 어떤 머리 긴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있고 양떼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뭐 저렇게 싱거운 그림을 그리나 했죠. “이런 그림 누가 사냐?” 물으니 “깊은 뜻이 있는 그림이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게 예수님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자기네 엄마를 고발했는데, 그 엄마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떼어서 책상 밑에 놓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딸이 아주 톨톨한 애였는데 자기 엄마를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잡혀갔죠. 또 강 건너 장백교회에서 성경이나 쌀을 메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는 미국 앞잡이로 알았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했죠. 하나원에서 보니까 장백교회에서 도

움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 장백교회 목사님은 진정으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A: 북한에서는 주민 통제 차원에서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봤죠. 황해도 사리원에 살면서 각지에 전도하러 다닌 반동분자가 총살 당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2017년쯤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방당한 집안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랑 가까운 친구도 OO에서 추방된 집안 아이였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서 추방됐어.”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일요일이면 흰옷 입고 어디 갔었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한총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총련은 북한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서 북한 보위부에서 가서 죽였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2016년인가? 보천쪽 압록강 건너에 중국 쪽에서 뱀이 엄청나게 넘어왔어요! 보위부가 나서서 조사하는 사건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한총련 죽였다고 중국 쪽에서 뱀을 보내냐? 사람이 뱀을 보낸다고 뱀들이 뭐를 알고 북한으로 넘어오겠냐?’ ‘정말 신기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런 얘기



중국쪽에서 바라본 해산 농촌 마을의 모습

했어요. 남한에 넘어와 보니까 그 한충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겠고 그때 상황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만난 탈북민들도 그 루터기 신자나 북한 있을 때 복음 들어본 사람들은 함경도 사람들이 많지 해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장백에 한충렬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분 연결된 사람들이나 복음 들어봤겠지요.

“해산은 이런 곳이다!”라고 한 말씀해 주시죠.

A: 해산은 구원받아야 할 땅이에요. 해산에는 삶에 지치고, 마약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밀수해서 돈이 도는 도시라고 하지만 어둠의 영에 놀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B: 백두산 아래 위치한 해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척박한 도시입니다. 북한이 3대 위인의 혁명유적지로 대노천박물관이라 홍보하는 곳이지만 조선시대부터 삼수갑산이라 불렸던 이곳은 중국과의 밀무역이 아니면 자생이 거의 불가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통해 자유의 냄새가 흘러 들어가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체험하던 해산의 주민들은 오늘도 짝 막혀있는 압록강을 바라보며 자유를, 통일을 피 터지게 갈망하고 있겠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를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해산 소식

### 2023년 해산에서 공개처형 이어져

2023년 해신시에서 공개처형이 최소 3회 이상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됐다. 8월 30일에 부림소를 도축해 밀매한 죄로 남성 7명과 여성 2명 총 9명이, 9월 25일에는 의약품 횡령죄로 남성 1명이, 12월 19일에는 강도살인죄로 남성 1명이 총살됐다.

같은 도시에서 불과 4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공개총살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흔치 않은 일로,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본보기가 목적이지만 김정은 사회질서 문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총살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치안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개재판에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다수가 동원됐다. (참고: 아시아프레스, 2023.12.27.)

### 해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세대당 1만원 할당

북한이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산에서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원 물자 마련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3월 15일 데일리NK에 의하면 “최근 해산시 인민반들에서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세대당 1만 원을 바치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산시 인민반들에서는 지난 4일부터 12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업공장 건설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북한 돈 1만 원,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명목으로 8000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지방에서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라며 “결국 돈이 없는 지방에서는 공장 건설도 주민 세외부담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 데일리NK, 2024. 03. 15, 사진: 노동신문)





## 중국의 해산 조망 관광시설, 북한 측 요구로 운영 중단



2021년, 백두산 관광 도로와 연결된 압록강 기슭에 유리바닥으로 된 높이 50미터, 길이 70미터의 웅장한 철탑이 세워졌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관광 철탑이 중국 공안 당국의 간섭으로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고 RFA가 전했다. RFA는 2024년 4월 1일 “마룩구에 세워진 유리 철탑이 지난달 1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이곳 장백현 공안국에서 운영을 중단 시켰는데 언제 다시 운영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했다.

소식통은 “철탑 밑 폭 37미터 가량의 압록강에 드리워져 있도록 설치된 이 철탑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한 돈 많은 사업가가 자기 돈을 들여 건설했다”며 “걸어서 올라가도록 설계된 철탑 위에 오르면 북한 양강도 해산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탑에 올라 북한을 구경하려면 중국 인민폐 7위안을 내야하는데 백두산을 다녀오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철탑을 국경관리 협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철거를 주장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중국 사람들이 때를 지어 철탑에 올라 쌍안경을 들고 해산시를 들여다보는 모습에 “우리(북한)가 하도 못 살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미개한 동물의 무리를 관찰하듯 철탑 위에서 사진까지 찍고 있다”며 양강도 주민들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사진 : rfa, 2024.04.04.)

## 해산-장백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고차 밀수

최근 북한에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북중간에 중고차 밀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거래는 대부분 밀수 형태로 이뤄지는데, 주로 중국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에서 북한 양강도 해산시를 통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은 금지되었지만 최근 북한의 중고차 수요가 늘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북 제재때문에 자동차 수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대유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운송수단인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축적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지난 4월 14일 촬영한 북한 양강도 해산시와 중국 길림성 장백의 모습.

(참고, 사진 : rfa, 2024.04.17.)

## 해산 시장에서 중국산 공산품 인기



인파로 가득한 해산 시장, 사진출처: RFA

2024년 6월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산 세관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여름 의류 공산품들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블라우스와 레이스로 된 브래지어, 원단이 얇고 살에 들러 붙지 않는 재질의 여성용 러닝셔츠와 순면으로 된 남성용 러닝셔츠 수요가 가장 많다.

현재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중국산 블라우스는 중국 돈으로 평균 30~50위안(한화 약

5700~9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위안(약 1만 9000원)이 넘는 블라우스도 있긴 하나 저렴한 가격의 블라우스가 잘 팔리고 비싼 상품은 잘 사는 사람들이나 구매한다.

또 브래지어 가격은 북한 돈 1만 5000~5만원(약 1600~5500원) 사이인데, 2만 5000원부터 시작해 5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국산(북한산) 브래지어에 비해 모든 면에서 훨씬 우수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고 내륙지역에까지 수입 공산품들이 도매로 나가면서 도매상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데일리NK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 밀수를 통해 수입과 수출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여러 가지를 팔아 넘겨 돈을 조금씩 벌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고도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돈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해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2023. 06. 30)

## 북한 양강도 해산타일공장이 새로 건설, 시운전

노동신문은 2023년 10월 29일 "도 당위원회에서는 농촌살림집 건설 등 도내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마감건재를 자체로 보장할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타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했다"고 보도했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산하 공장, 기업소에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건축 공사를 했으며, 해산강철공장, 해산임업기계공장 등에서 설비 제작에서 문제들을 원만히 풀었다"고 전했다.

"양강공업대학의 연구집단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에서 큰 몫을 맡아 했으며, 공장에서는 질 좋은 타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덧붙였다.

(참조: SPN 서울평양뉴스, 2023. 10. 30)



양강도 타일공장의 노동자들, 사진출처: 뉴스1

## 양강도, 해산젓소목장 조업 시작

북한 양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해산젓소목장이 조업을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20일 "젓소우리와 젓가공실, 보리싹재배장, 뽕물등에(단백벌레)서식장, 사료창고 등이 갖추어진 목장이 건설됨에 따라 도내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제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강도농촌경리위원회 해산젓소목장 조업식이 19일 심광천 양강도당위원회 비서와 관계부문 일꾼, 건설자, 해산시의 근로자, 목장종업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김영남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업사에서 "당중앙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기초와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고 목장 건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참조: SPN 서울평양뉴스 2023, 11, 20)



사진 출처: 뉴스1



## 해산의 대표 식당 압록각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 자리잡은 압록각은 양강도의 특산인 여러가지 감자음식을 잘하기로 소문난 식당이라고 조선신보가 2023년 12월 보도했다.



“풍치수려한 압록강의 운치를 더해주며 이채롭게 솟아있는 압록각으로는 양강도 인민(주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생들이 그칠새 없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압록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식사실도 있으며, 이곳 봉사자들이 지난 시기에

진행된 여러 요리축전에 참가해 거둔 성과자료들이 전시돼 있는 방도 있다. 현재 압록각에서는 유압식 국수기계도 새로 마련해 놓고 반죽기 등 각종 설비도 현대화했으며 그 과정에 농마국수의 질도 더욱 좋아지고 감자음식들의 가짓수도 많이 늘어났다. 평양시에도 현재 감자음식을 전문으로 봉사하고 있는 양강도 특산물 식당인 압록각이 있다.

(참고, 사진 출처: SPN 서울평양뉴스, 2023. 12. 17)

##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소개된 해산의 소식들

통일부는 2024년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해산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관련 35회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송환된 여성 증언자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의 조사 담당 보위원에게 ‘중국 남자, 북한 남자와의 성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성희롱 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70)

2020년경 양강도 해산시 인민위원회 산하기관 노동자였던 증언자는 직장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대신, 고급중학생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하거나, 개인이 의뢰한 작업을 해주고 돈을 벌며 생활했다고 했다. (339)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은 자주 이용되는 처형 장소이다.(175)

“2018년 11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손을 들고 계호원에게 생리대를 요청하면 생리대를 하나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리대를 요청하면 귀찮았는지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안서 대기실에서는) 약 6m×4m 정도 크기의 방안에 30명이 함께 생활해서 매우 비좁았습니다. 방안에는 변기가 있었고, 잘 때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203)

“2015년 양강도 해산시 보안서 계호원 중 ○○○이라는 사람은 수감자 중 젊거나,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자리를 감방의 앞쪽인 철창살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은 취침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감자를 깨워놓고는 수감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철창 안으로 넣고 수감자의 신체의 일부(주로 가슴)를 강제로 만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2016년 즈음 양강도 해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이 수감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 했다고 했습니다.”(214)

“2019년 양강도 해산시 해산영화관에서 불법 녹화물 시청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등중학교 학생 6명이 대상이었는데, 주모자 1명은 노동단련형 2년을 받아 소년교양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교양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달 뒤에는 미신행위자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미신 행위자(점쟁이)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고 점을 봤던 주민들은 노동단련대 3~5개월을 갖습니다.”(239)

“2016년경 양강도 해산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소에서 선정해 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변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는 북한 당국의 하수인들입니다.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고,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상소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는 있었지만, 재판 중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245)

“2017년 12월경 양강도 해산시 친구의 집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남한 영화를 보던 중 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109상무 3명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그 상황에 놀라서 메모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았는데 상무가 그 메모리를 발견하면서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원래 109상무가 가택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인민반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런데 최근에는 영장 없이, 그리고 인민반장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59, 260)

“2021년 4월 22일 양강도 해산시 역전 공원에서 30대 중반 남자가 아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삼지연 돌격대원이었는데, 역전 분주소 안전원이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사꾼들이 2021년 겨울에만 15명이 아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336)

“남편이 양강도 해산시 병원에서 잠복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핵환자들은 국가에서 약을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 진료소에 가서 2개월간 결핵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분을 받아왔지만, 진료소까지 거리가 있어서(도보 30분) 제가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료소에서 (2개월) 이후 검진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료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아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349)

“2018년 9월까지 양강도 해산시 위연 살림집 건설돌격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개인이 가져오거나 각 기업소가 부담했습니다. 도당 위원회에서 안전 감독을 했지만 부상자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경 건설동 1층에서 여자 대원이 떨어져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고, 2018년에는 작업장 6층에서 콘크리트 혼합물을 실어 올라가는 기중기 줄이 끊어지면서 돌격대원이 기중기 바가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385)

다른 증언자도 중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 친구 두 명이 양강도 해산시 위연역 앞에서 소위 ‘밤꽃’(밤에 꽃을 파는 여자라는 뜻으로 성매매 여성을 지칭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449)

“20년 전인 2003년의 일로 저는 당시 열한 살이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 송봉 2동 강철공장 앞 농장 밭에서 남자 두 명이 공개처형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따당, ‘따당’ 하는 식으로 열두 발 정도의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꼬꾸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를 지어 저렇게 죽는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452)

출처: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ission  
Bible  
College

# 성경대학시리즈

##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